

네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믿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 성서신애

정기 간행물 구로 라 00095

손 현 섭 편집

제504호

2023년 9월

여름 성서집회를 마치고 .....	손 현 섭	2
신약성서 번역본(마 23:1-21) .....	전 준 덕	3
헷시바와 뿔라라고 부르리라 .....	연 창 호	12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강같이 .....	조 득 환	20
예수님은 기적을 - 어떻게 쓰셨는가 .....	배 지 현	35
바울 사도 소전(小傳)(2) .....	최 정 일	51
하나님의 영광 .....	최 제 현	69
천국 .....	오 성 해	81
만화로 보는 한 줄 성경 .....	메 나 리	86
노평구 선생 묘역 참배 안내 .....	편 집 실	88

## 성서신애사

## 여름 성서 집회를 마치고

전국성서집회가 있던 날 새벽, 우리 가족은 아이들을 깨워 서둘러 부산에서 출발했다. 서울에 왔으니 먼저 강화 요양원에 계시는 아버님께 인사를 드리고, 부랴부랴 집회 장소에 도착했다. 벌써 기다리는 분들이 있었다. 김영웅 선생님 일행과 김영희 님 등 보고 싶은 분들을 만나니 정말 반가웠다.

드디어 오후 3시. 진영선 선생의 강의를 시작으로 진지한 말씀의 잔치가 열렸다. 강의를 맡으신 분들의 원고를 받아 책으로 만들면서, ‘이런 말씀을 어디에서 들겠는가?’ 하고 감격했었는데, 글로 볼 때와는 완전히 다른 감동이 있었다.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다가 1년에 두 번 만나서 성서 진리에 빠져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내게는 참으로 감사하고 가슴 벅찬 기쁨이다. 그러나 이 귀한 말씀을 듣는 이가 너무 적어서 안타깝다. 바울 사도의 권고를 나부터 다시 마음에 새기기로 했다.

“모이기를 중단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는 일에 힘쓰시다.”(히 10:25)

그 동안 하늘로 돌아가신 분들의 빈 자리가 참 허전했다. 특히 집회 직전에 돌아가신 배명수 선생님 생각이 난다며, 그리운 마음을 말씀하신 분이 많았다. 이번이 마지막 참석일 것 같다고 하신 이승진 여사님을 비롯해서 선배님들이 지난겨울보다 더 약해진 모습으로 오신 게 가슴 아팠지만, 그럴수록 더 성서 진리에 철저한 모임이 되어야 한다고 다짐했다.

“여러분, 겨울 전국집회에서 다시 만나볼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처음 오신 대전의 은수천 님께 감사드립니다.” (손현섭)

# Το ΚΑΤΑ ΜΑΤΘΑΙΟΝ ΑΓΙΟΝ ΕΥΑΓΓΕΛΙΟΝ

## <맛다이오스에 의해(기록한) 거룩한 복음>

(일명 : 마태라는 사람이 기록한, 거룩한 복된 소식)

마 23:1-21

전 준 덕

1절 : Τότε ὁ Ἰησοῦς ἐλάλησε τοῖς ὄχλοις καὶ τοῖς μαθηταῖς αὐτοῦ

사역 : 그 무렵 이에수스님은 무리와 자기의 제자들에게 (목에 힘을 주어) 말씀하셨습니다.

2절 : λέγων, Ἐπὶ τῆς Μωσέως(Μωϋσέως) καθέδρας ἐκάθισαν οἱ γραμματεῖς καὶ οἱ Φαρισαῖοι·

사역 : 말씀하시기를 서기관들과 파리사이오스인들이 모슈스의 자리에 앉아 있소이다.

주) 1. καθέδρας : καθέδρα의 단수, 소유격과 복수, 대격(본절은 단수, 소유격). (21:12절 참조)

2. ἐκάθισαν : κάθιζω의 제1과, 능동태, 직설법, 복수, 3인칭(5:1절 참조).

3절 : πάντα οὖν ὅσα ἂν(ἐὰν) εἴπωσιν ὑμῖν τηρεῖν, τηρεῖτε, (ποιήσατε) καὶ ποιεῖτε·(τηρεῖτε,) κατὰ δὲ τὰ ἔργα αὐτῶν μὴ ποιεῖτε, λέγουσι γὰρ καὶ οὐ ποιοῦσι.

사역 : 그러므로 저들이 여러분에게 지키라고 권유한 모든 것을 지키고 행하시오. 그러나 여러분은 저들의 행위를 따라 하지 마오. 왜냐면 저들은 말은 하되 행함이 없소이다.

주) 1. τηρεῖν : τηρέω(단축동사)의 현재, 능동태, 부정사(19:17절 참조).

2. τηρεῖτε : τηρέω(단축동사)의 현재, 능동태, 명령법, 복수, 2인칭 (19:17절 참조).

3. τὰ ἔργα αὐτῶν μὴ ποιεῖτε : (그들의 하는대로 하지 말라)는 숙어.

4절 : δεσμεύουσι γὰρ(δὲ) φορτία βαρέα καὶ δυσβάστακτα, καὶ ἐπιτιθέασιν ἐπὶ τοὺς ὤμους τῶν ἀνθρώπων, ἱῶ(αὐτοῖ) δὲ(τῷ) δακτύλῳ αὐτῶν οὐ θέλουσι κινῆσαι αὐτά.

사역 : 왜냐면 저들은 무겁고 짊어지기 힘든 짐들을 묶어 사람들의 어깨에 매워주고 저들은 자기의 손가락 한 개도 그 짐을 움직이여 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오.

주) 1. δεσμεύουσι : δεσμεύω(매다, 묶다, 결박하다, 동이다, 가두다, 꾸리다)라는 동사의 현재, 능동태, 직설법, 복수, 3인칭.

2. φορτία : φορτίον(짐, 화물, 뱃짐)의 제2변화 명사에 속한 중성명사의 복수, 주격과 대격(본절은 대격).

3. δυσβάστακτα : δυσβαστακτος(δός+βαστάζω의 합성어) (지기 어려운, 참기 힘든, 고단한, 가혹한)의 제1, 제2변화 형용사에 속한 중성, 복수, 주격과 대격(본절은 대격).

4. ἐπιτιθέασιν : ἐπιτίθημι(ἐπί+τίθημι의 합성동사)의 현재, 능동태, 직설법, 복수, 3인칭(9:18절 참조).

5. δακτύλῳ : δάκτυλος(손가락)의 제2변화 명사에 속한 남성명사의 단수, 여격.

6. κινῆσαι : κινέω(단축동사) (움직이다, 옮기다, 이전하다, 흔들리다, 자극하다, 일으키다, 살아 움직이다)라는 동사의 제1과, 능동태, 부정사.

5절 : πάντα δὲ τὰ ἔργα αὐτῶν ποιοῦσι πρὸς τὸ θεαθῆναι τοῖς ἀνθρώποις: πλατύνουσιν δὲ(γὰρ) τὰ φυλακτήρια αὐτῶν, καὶ μεγα

λύνουσιν τὰ κράσπεδα τῶν ἱματίων αὐτῶν·

사역 : 또 저들은 자신의 모든 행위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행동하고 있소, 또 저들은 호신패를 넓고 크게하며 또한 자신들의 겹옷의 술을 크게 확대하고 있소.

주) 1. πλατύνουσιν : πλατύνω(비음동사) (넓게하다, 크게하다, 확대하다)라는 동사의 현재, 능동태, 직설법, 복수, 3인칭.

2. φυλακτήρια : φυλακτήριον(보호물, 호신패, 부적, 방위의 수단)의 제2변화 명사에 속한 중성명사의 복수, 대격.

3. μεγαλύνουσιν : μεγαλύνω(비음동사) (크게하다, 길게하다, 확대하다, 높이다, 찬양하다, 영광스럽게 하다)라는 동사의 현재, 능동태, 직설법, 복수, 3인칭.

4. κράσπεδα : κράσπεδον의 복수, 주격과 대격(본절은 대격). (9:20절 참조)

5. ἱματίων : ἱματιον의 복수, 소유격(5:40절 참조).

6절 : φιλοῦσι τε(δὲ) τὴν πρωτοκλισίαν ἐν τοῖς δείπνοις, καὶ τὰς πρωτοκαθεδρίας ἐν ταῖς συναγωγαῖς,

사역 : 그리고 저들은 연회장에서 제일 좋은 자리를 선호하며 회당에서도 제일 높은 자리를 좋아하오.

주) 1. πρωτοκλισίαν : πρωτοκλισία(πρῶτος+κλισία의 합성어)(식탁의 제일 높은 자리, 주인의 옆자리)의 제1변화 명사에 속한 여성명사의 복수, 대격.

2. πρωτοκαθεδρίας : πρωτοκαθεδρία(πρῶτος+καθέδρα의 합성어)(제일 높은 자리, 제일 좋은 자리, 가장 영광스런 자리, 특색)의 제1변화 명사에 속한 여성명사의 복수, 대격.

7절 : καὶ τοὺς ἀσπασμοὺς ἐν ταῖς ἀγοραῖς, καὶ καλεῖσθαι ὑπὸ τῶν ἀνθρώπων, ῥαββί, ῥαββί·

사역 : 또 공회소에서 문안 받기를 좋아하며, 사람들로부터 선생님 선생님과 부름 받기를 좋아하오.

주) 1. ἀσπασμούς : ἀσπασμός(인사, 문안)의 제2변화 명사에 속한 남성명사의 복수, 대격.

2. καλεῖσθαι : καλέω(단축동사)의 현재, 중(수), 부정사(1:21절 참조).

3. ῥαββί(히브리어, 또는 아람어) : (랍비, 선생님)

8절 : ὑμεῖς δὲ μὴ κληθῆτε ῥαββί·, εἷς γὰρ ἐστὶν ὑμῶν ὁ καθηγητής,(διδάσκαλος,) ὁ Χριστός· πάντες δὲ ὑμεῖς ἀδελφοί ἐστε.

사역 : 그러나 여러분은 랍비라는 호칭을 받지 마오. 여러분의 스승은 오직 한 분이신 그리스토스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모두 한 형제들이오.

주) 1. κληθῆτε : καλέω(단축동사)의 제1과, 수동태, 가정법, 복수, 2인칭(1:21절 참조).

2. καθηγητής(인도자, 지도자, 교사, 스승)의 제1변화 명사에 속한 남성명사의 단수, 주격.

9절 : καὶ πατέρα μὴ καλέσητε ὑμῶν ἐπὶ τῆς γῆς· εἷς γὰρ ἐστὶν (ὑμῶν) ὁ πατὴρ ὑμῶν, ὁ ἐν τοῖς οὐρανοῖς·

사역 : 그래서 여러분은 세상에 계신 여러분의 아버지를(아버지)라 호칭하지 마시오. 오직 여러분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한 분 뿐이오.

10절 : μηδὲ κληθῆτε καθηγηταί·(ῶτι) εἷς γὰρ (καθηγητής) ὑμῶν ἐ

στιν(εἷς) ὁ καθηγητής, ὁ Χριστός.

사역 : 또한 여러분은 지도자라는 호칭을 받지마오. 왜냐면 여러분의 지도자는 크리스투스 한 분 뿐이오.

11절 : ὁ δὲ μείζων ὑμῶν ἔσται ὑμῶν διάκονος.

사역 : 그리고 여러분 중에 큰 자는 여러분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오.

12절 : ὅστις δὲ ὑψώσει ἑαυτὸν ταπεινωθήσεται· καὶ ὅστις ταπεινώσει ἑαυτὸν ὑψωθήσεται.

사역 : 자,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사람은 밑으로 낮아지게 될 것이오. 또 누구든지 자신을 낮추는 사람은 위로 높아지게 될 것이오.

주) 1. ὑψώσει : ὑψώω(단축동사)의 미래, 능동태, 직설법, 단수, 3인칭(11:23절 참조).

2. ὑψωθήσεται : ὑψώω(단축동사)의 미래, 수동태, 직설법, 단수, 3인칭(11:23절 참조).

3. ταπεινωθήσεται : ταπεινώω(단축동사)의 미래, 수동태, 직설법, 단수, 3인칭(18:4절 참조).

4. ταπεινώσει : ταπεινώω(단축동사)의 미래, 능동태, 직설법, 단수, 3인칭(18:4절 참조).

13절 : Οὐαὶ δὲ ὑμῖν, γραμματεῖς καὶ Φαρισαῖοι, ὑποκριταί, ὅτι κατεσθίετε τὰς οἰκίας τῶν χηρῶν, καὶ προφάσει μακρὰ προσευχόμενοι· διὰ τοῦτο λήψεσθε περισσότερον κρίμα.

자! 여러분에게 화 있을 것이오. 위선하는 서기관들과 파리사이오스인들이여, 여러분은 과부의 재산들을 약탈하며 길게 가장하여 기도하고 있소.

그러므로 여러분은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오.

주) 1. κατεσθίετε : κατεσθίω(κατά+έσθίω의 합성동사) (먹어버리다, 삼키다, 먹어치우다, 멸하다, 약탈하다, 해치다, 삼켜버리다, 탕진하다)라는 동사의 현재, 능동태, 직설법, 복수, 2인칭.

2. οίκιας : οίκία의 복수, 대격(2:11절 참조).

3. χηρῶν : χήρα(과부)의 제1변화 명사에 속한 여성명사의 복수, 소유격.

4. προφάσει : πρόφασις(πρό+φάσις의 합성어) (앞에 나타남, 실제적인 동기, 이유, 정당한 핑계, 구실, 가장의 제3변화 명사에 속한 여성명사의 단수, 여격.

5. μακρά : μακρός(긴, 먼)의 제1, 제2변화 형용사에 속한 중성, 복수, 주격과 대격(본절은 대격).

6. προσευχόμενοι : (5:44절과 6:7절 참조)

7. λήψεσθε : (5:40절과 20:7절 참조)

14절 : Οὐαὶ ὑμῖν, γραμματεῖς καὶ Φαρισαῖοι, ὑποκριταί, ὅτι κλείετε τὴν βασιλείαν τῶν οὐρανῶν ἔμπροσθεν τῶν ἀνθρώπων· ὑμεῖς γὰρ οὐκ εἰσέρχεσθε, οὐδὲ τοὺς εἰσερχομένους ἀφίετε εἰσελθεῖν.

사역 : 여러분에게 화 있을 것이오, 위선하는 서기관들과 파리사이오스인들이여 여러분은 하늘나라의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아두고 있소. 그리고 서 여러분(스스로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는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있소이다.

주) 1. κλείετε : κλείω의 현재, 능동태, 직설법, 복수, 2인칭(6:6절 참조).

2. εἰσέρχεσθε : εἰσέρχομαι(εἰς+ἔρχομαι의 합성동사)의 현재, 중(수), 직설법, 복수, 2인칭(5:20절 참조).

3. εἰσερχομένους : εἰσέρχομαι(εἰς+ἔρχομαι의 합성동사)의 현재, 중(수), 분사, 남성, 복수, 대격(5:20절 참조).

Nastle Aland 사본은 13절 말씀을 누락시켰고, 14절 말씀을 13절에 두고 14절은 없으므로 함.

15절 : Οὐαὶ ὑμῖν, γραμματεῖς καὶ Φαρισαῖοι, ὑποκριταί, ὅτι περιάγετε τὴν θάλασσαν καὶ τὴν ξηρὰν ποιῆσαι ἓνα προσήλυτον, καὶ ὅταν γένηται, ποιεῖτε αὐτὸν υἱὸν γεέννης διπλότερον ὑμῶν.

사역 : 여러분에게 화가 있을 것이오. 위선 노릇하는 서기관들과 파리사이오스인들이여! 여러분은 개종자 한 사람을 얻고자 온 세상을 두루 다니다가(뜻을) 이루어지게 되면 여러분은 그 사람을 여러분 보다 두배로 지옥 자녀를 만들고 있소.

주) 1. περιάγετε : περιάγω(περί+ἄγω의 합성동사)(데리고 다니다, 끌고 다니다, (자) 돌아다니다, 이리저리 다니다, 오르내리다)라는 동사의 현재, 능동태, 직설법, 복수, 2인칭.

2. ξηρὰν : (12:10절 참조)

3. προσήλυτον : προσήλυτος(새로 온 자, 개종자,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의 제1, 제2변화 형용사에속한 남성, 단수, 대격.

4. διπλότερον : διπλοῦς(διπλόος의 비교급) (이배로, 두배로)의 남성, 단수, 대격.

16절 : Οὐαὶ ὑμῖν, ὁδηγοὶ τυφλοῖ, οἱ λέγοντες, Ὅς ἂν ὁμόση ἐν τῷ ναῶ, οὐδέν ἐστιν· ὃς δ' ἂν ὁμόση ἐν τῷ χρυσῷ τοῦ ναοῦ, ὀφείλει.

사역 : 여러분에게 화 있을 것이오. 눈먼 인도자들이여! 여러분은 말하고 있소. 누구든지 성전안의 지성소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지성소의 금으로 맹세하면 반드시 지킬 의무가 있다 하오.

- 주) 1. ὁμότης : ὁμότης의 제1과, 능동태, 가정법, 단수, 3인칭(5:34절 참조).  
 2. ναῶν : ναός(신전, 성전, 신랑, 신사, 거처, 성전의 지성소)의 제2변화 명사에 속한 남성명사의 단수, 여격.  
 3. χρυσῶν : χρυσός의 단수, 여격(2:11절 참조).  
 4. ὀφείλει : ὀφείλω(유음동사)의 현재, 능동태, 직설법, 단수, 3인칭(18:28절 참조).

17절 : μωροὶ καὶ τυφλοί· τίς γὰρ μείζων ἐστίν, ὁ χρυσὸς, ἢ ὁ ναὸς ὁ ἀγιάζων(ἀγιάσας) τὸν χρυσόν;

사역 : 정말 어리석고 눈먼 자들이여! 어떤 것이(진정) 크오? 그 금이요. 그 금을 거룩하게 한 지성소요?

- 주) 1. μωροί : μωρός의 복수, 주격과 호격(본절은 호격). (5:22절 참조)  
 2. ναός : (23:16절 참조)

18절 : καί, Ὡς ἐὰν(ἂν) ὁμότης ἐν τῷ θυσιαστηρίῳ, οὐδὲν ἐστίν· ὅς δ' ἂν ὁμότης ἐν τῷ δώρῳ τῷ ἐπάνω αὐτοῦ, ὀφείλει.

사역 : 또,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도 없다 하오. 그러나 제단 위에 놓인 예물로 맹세하면 반드시 지킬 의무가 있다 하고 있소.

주) 1. θυσιαστηρίῳ : θυσιαστηρίον(θυσία+στηρίζω의 합성어)의 단축, 여격(5:23절 참조).

2. ἐπάνω(ἐπί+ἄνω의 합성어)(부) : (위에, 위로, 그 이상)

19절 : μωροὶ καὶ τυφλοί, τί γὰρ μείζων, τὸ δῶρον, ἢ τὸ θυσιασθήριον τὸ ἀγιάζον τὸ δῶρον;

사역 : 정말 어리석고 눈먼 자들이여! 어느 것이 크오? 예물이요 아니면 예물을 거룩하게하는 제단이오?

20절 : ὁ οὖν ὁμόςας ἐν τῷ θυσιαστηρίῳ ὀμνύει ἐν αὐτῷ καὶ ἐν πάσιν(πᾶσι) τοῖς ἐπάνω αὐτοῦ·

사역 :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한 사람은 그 제단과 제단 위에 있는 모든 예물과 함께 맹세하는 것과 같소.

- 주) 1. ὁμόςας : ὀμνύω의 제과, 능동태, 분사, 남성, 단수, 주격(5:34절 참조).  
 2. ὀμνύει : ὀμνύω의 현재, 능동태, 직설법, 단수, 3인칭(5:34절 참조).

21절 : καὶ ὁ ὁμόςας ἐν τῷ ναῷ ὀμνύει ἐν αὐτῷ καὶ ἐν τῷ κατοικοῦντι αὐτόν·

사역 : 또한 성전으로 맹세한 사람은 성전과 성전 안에 계신분과 맹세한 것과 같소이다.

주) 1. κατοικοῦντι : κατοικέω(κατά+οικέω의 합성동사 및 단축동사)의 현재, 능동태, 분사, 남성, 단수, 여격(2:23절 참조).

(\* 혹시 의문이나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전준덕 선생님께 연락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릴 것입니다. 연락처 : 010-4622-8903)

【8월호 오탈자 수정합니다.】

쪽	틀린 곳	수정
3쪽 13줄	ἀπῆλθον.(ἀπῆλθαν.)	ἀπῆλθον.(ἀπῆλθαν.)
6쪽 8줄	하나님의 천사들처럼	하나님의 천사들처럼
9쪽 2줄	이것이 첫째이며	이것이 <u>첫째</u> 이며
10쪽 3줄	Τοῦ Δαβίδ.(Δαυίδ.)	Τοῦ <u>Δαβίδ</u> .(Δαυίδ.)

# 헵시바와 뿔라라고 부르리라

이사야 62장

연 창 호

시온의 의가 밝게 비치고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처럼 타오를 때까지

내가 잠잠하지 않으며 침묵을 지키지 않을 것이다.

예루살렘아, 모든 민족이 너의 구원을 볼 것이며

세상의 모든 왕들이 너의 영광을 볼 것이다.

너는 여호와께서 주신 새 이름으로 불려질 것이며

여호와를 위한 아름다운 면류관이 될 것이다(사62:1~3).

○ 시온에는 아직 어둠이 내려와 있습니다. 이제 시온의 의가 밝아져야 합니다. 시온은 구원의 소식이 끊긴지 오래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에서 구원의 햇불이 타올라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결코 버려두지 않습니다. 힘들고 절망적일수록 하나님의 구원의 팔을 앙망해야 합니다. 2절의 화자(話者)인 ‘나’는 누구일까요? 예언자인 이사야로 보는 견해도 있고(캘빈), 하나님이라는 견해도 있고(데리취), 중보자인 메시아로 보는 견해(호크마)도 있습니다.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예언자 내지 메시아를 말한다고 보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대신해 말을 하는 자입니다. 시온은 하나님의 영광의 도성으로 다시 태어나게 될 것이고, 새 이름을 얻게 될 것이고, 아름다운 면류관을 쓰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이사야가 본 역사의 희망입니다. 인간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이 있기 때문에 삶의 응전에 도전하며 사는 존재입니다. 인간의 삶은 하나님이라는 나침반이 없으면 방황하고 허무에 빠집니다. 하나님을 찾고 사랑하는 본성을 하나님은 그의 피조물에 새겨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찾고 또 찾는 게 삶의 목적입니다.

사람들이 다시는 너를  
 버려진 땅이나 황무지라고 부르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뜻으로 ‘헵시바’,  
 결혼을 했다는 뜻으로 ‘뿔라’라 부를 것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너를 기쁘게 여기실 것이며  
 그가 너에게 결혼한 남편과 같을 것이기 때문이다.  
 젊은 남자가 처녀와 결혼하듯이 너를 세운 자가 너와 결혼할 것이며  
 신랑이 신부를 보고 기뻐하듯 네 하나님이 너를 보고 기뻐하실 것이다  
 (사 62:4~5).

○ 하나님이 예루살렘과 결혼하자 시온성은 신분에 변화가 일어났습니  
 다. 이제 다시는 시온은 버려진 땅도 아니고 황무지도 아닙니다. 그래서  
 새 시대에는 ‘헵시바’와 ‘뿔라’라는 새 이름을 얻습니다. 옛 시대에서 버려  
 진 여인은 ‘아주바’라 불렸고, 황폐한 땅은 ‘셔마마’라고 했습니다. 시온은  
 적국에 의해 멸망 당해 황무지가 된 지 오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시온을 다시 회복시키고자 합니다. 이것이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의지입니  
 다. 그리고 새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새 이름인 헵시바는 ‘너는 나의  
 기쁨’이라는 뜻이고, 뿔라는 ‘결혼한 여자’라는 뜻입니다. 예루살렘은 이제  
 결혼하여 하나님의 기쁨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에서 하나  
 님을 만날 때 우리의 이름이 바뀌고 우리의 신분이 바뀝니다. 우리는 하  
 나님의 신부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신부가 신랑의 보호를 받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신부와 신랑은 서로  
 사랑하고 기뻐하는 관계처럼 우리 역사 하나님과 하나요 사랑하는 관계입  
 니다. 우리는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요?

5절의 번역을 개역성경 구절에서는 “네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로 하  
 였는데 난해하고 이상한 구절입니다. 네 아들들의 원어는 ‘바나이크’로 ‘아

들들'이란 뜻 이외에 '건축자'란 뜻의 '보네크'란 뜻도 있으므로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에선 "그가 너에게 결혼한 남편과 같을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번역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신부이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아, 내가 네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그들은 밤낮 잠잠하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를 부르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복구하여  
온 세상이 찬양하는 도시로 만드실 때까지  
그를 쉬지 못하게 하라(사62:6~7).

○ 6절의 나는 예언자입니다. 예언자는 파수꾼을 세워 밤낮 성을 지키게 합니다. 이와 같은 일은 예루살렘이 회복될 때까지 쉬지 않고 진행될 것입니다. 시온은 이제 온 세상이 부러워하고 찬양하는 도시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한숨 쉬고 움츠리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기운을 차리고 힘차게 일어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인 우리 역시 믿음 안에서 쉬지 않고 일할 뿐입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길 뿐이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 시온을 회복시켜 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때가 되면 영광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세상은 도전하는 자의 것입니다. 과거에 매여 자신을 탓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도전해 쟁취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팔인 오른손으로 맹세하셨다.

‘내가 다시는 네 곡식을 네 원수들의 양식으로 주지 않겠다.

네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다시는 외국인들이 마시지 못할 것이며 곡식을 추수한 자들이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양할 것이요

포도를 거둔 자들이 내 성전 뜰에서 포도주를 마실 것이다’(사62:8~9).

○ 하나님의 오른손은 권능의 팔이며, 맹세한다는 것은 서약한다는 뜻입니다. 이전에는 적들이 몰려와 곡식을 약탈하였고, 포도주 역시 빼앗아 갔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적들로부터 보호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내 힘으로 잘 먹고 잘살 수 있다고 생각하나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들 겪어 보셨을 겁니다. 한때 흥하더라도 이런저런 일로 인해 물질과 건강을 잃어버리는 게 인생살이입니다. 세상사 만만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계획과 뜻대로 되질 않는 게 세상살이입니다. 우리는 다치고 깨져 봐야 압니다. 곤이지지(困而知之)지요. 고생하면서 배웁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권능의 팔을 의지하고 그분의 보호하심에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끝까지 사랑합니다. 이를 믿고 찬양하고 감사하며 살뿐입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아.

성 밖으로 나가서 돌아오는

네 백성을 위해 길을 예비하라.

대로를 닦고 돌을 제거하라.

온 세계가 알 수 있도록 기를 세워라.

여호와께서 온 세상에 선포하신다.

‘너희는 예루살렘 주민에게

나 여호와가 그들을 구원하러 간다고 말하며

그들에게 줄 선물을 가지고 간다고 말하라.’  
 사람들은 그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여호와께서 구원하신 백성’이라 부를 것이며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도시’,  
 ‘하나님이 버리지 않은 도시’라 부를 것이다(사62:10~12).

○ 포로가 되어 흩어진 백성들이 깃발을 앞세우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로를 닦고 돌을 제거해 그때를 예비하고 합니다. 믿음은 순종이라는 행동을 요구합니다.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죽은 양심입니다. 바울과 루터는 성령과 양심 안에서 행동합니다. 삶이야말로 믿음과 행동이 어우러진 인생의 예술입니다. 그럴 때 예루살렘은 험시바와 뿔라 이외에 네 가지의 새로운 이름을 받습니다. ‘거룩한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고, ‘구원하신 백성’은 하나님에 의해 해방을 얻게 된 백성을 말하고,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도시’는 신부와 같은 도시라는 말이고, ‘버리지 않은 도시’는 하나님이 영원히 돌보아 주신다는 뜻입니다. 이 네 가지의 이름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불러주는 새 이름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이름이 변화하는 것은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삶의 환경과 상황이 급격히 바뀌거나, 남녀가 결혼하거나, 하나님과의 언약이 새로 맺어질 때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이는 모두 당사자의 인생에서 질적인 큰 변화가 일어날 때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려두지 않습니다. 버림받았던 시온의 백성이 다시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를 받으면서 새 이름을 받게 된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다시 발견할 때 우리의 운명이 바뀌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에 의해 회복, 구원, 영광의 새 옷을 입게 될 것입니다. 인생과 세상을 보는 가치관의 변화와 각성을 행동의 변화로 나타냅니다. 그의 삶이 변화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역사(役事)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닦아야 합니다. 이것이 이사야 62장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험시바와 뿔라로서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부부는 함께 고난을 헤쳐나가는 삶의 동반자이자 동지입니다. 한쪽의 희생만을 바라는 건 옳지 않습니다. 나는 나의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시대와 역사 앞에 민족 공동체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합니다. 과연 그리스도인은 민족의 고난에 동참해 고난받고 십자가를 지고 있는지요. 그리스도교는 믿음의 종교입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과연 믿음이 무엇일까 생각해 봅니다.

관념의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이천 년 이상 플라톤 철학의 형이상학적 관념론으로 교회에 자리 잡아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관념론은 이 땅과 우리의 삶의 현실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복음과도 관련이 없습니다. 인간이 만든 지적인 우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이런 믿음을 고수하고 이런 믿음이 천국 가는 보증 수표 인양 믿어 왔고 믿게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믿음은 사실 우상입니다. 우리는 믿노라 하지만 우상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이란 우상을 잘 못 믿을 때 말입니다. 예언자들은 하나님을 우상처럼 믿는 현실을 통탄해한 분들입니다.

인간은 우상을 만들고 믿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역시 내가 만든 우상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듭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믿음은 머릿속의 관념이 아니라 삶 자체가 믿음입니다. 믿음과 삶은 하나입니다. 믿음은 행위로 드러나고 행위는 믿음의 결과물입니다. 둘로 보거나 결국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이 그러하고 바울의 믿음이 그러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사는 삶 자체입니다. 결코 행위의 반대가 아닙니다.

삶 속에서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양심대로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때론 넘어지고 실수하고 깨어지더라도 그것 역시 믿음의 연단 과정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야말로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신뢰하고 바라면서 용기 내어 거친 세상에 발을 들여놓는 것입니다. 믿음과 행동은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대로(大路)를 놓아라, 하면 이에 순종해 하나님이 원하는 행위를 하는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성공한 결과를 자랑하는 것 이전에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힘과 의지를 느끼고 순종해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을 바울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말했습니다. 루터 역시 바울의 말을 받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했다면서 면죄부 판매 행위의 무용성을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루터 사이의 천오백년간 교회사에는 플라톤의 관념론이 교회에 이미 들어와 조직신학으로 자리 잡아 믿음과 행위를 대립되는 두 개로 설정해 놓아 버렸습니다.

바로 이원론입니다. 맘몬과 권력을 차지한 지배자와 권력자의 철학이 이원론입니다. 그럼 이원론이 히브리적 신앙이고 이사야의 신앙이고 바울과 초대교회의 신앙일까요?

루터는 면죄부 판매라는 악한 행위를 부수기 위해 믿음을 강조했는데 후세인들이 루터가 믿음과 행위를 철저히 분리했다고 해석했습니다. 물론 루터 역시 어거스틴의 영향으로 믿음과 행위를 분리한 면이 강함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든 것만큼 인간의 욕망에 부합하는 교리는 없습니다. 수많은 악행과 죄악을 반복해 계속 저지르고도 그때마다 회개했으니 구원받을 거야 하는 교리는 러시아의 요승 라스푸틴의 사교(邪

敎) 교리와 다를 바 없습니다.

죄를 계속 행하고 믿음으로 구원받자! 이게 복음인지요. 그것은 타락일 뿐입니다. 바울이 비판한 ‘행위’는 믿음이 배제된 채 할례받았으니 구원 받았어 하는 것을 비판한 것이지요. 할례 행위가 구원의 보증이 아니라 믿음이 중요한데 그 믿음은 선한 행위를 배제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어의 ‘에무나’가 신약성서에서 ‘피스티스’로 번역되었는데 이는 신뢰한다는 믿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에무나’는 성실히 충실히 등 행위를 수식하는 부사입니다. 따라서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면서 하는 어떤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서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믿음만 강조한 게 아닙니다. 행위 역시 강조했습니다. 그 둘이 둘로 보이거나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그러합니다. 바울의 서신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다만 바울은 이미 (이원론에 깊이 물든) 헬라화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원론을 방편으로 삼았음을 밝혀 둡니다. 과연 믿음이 무엇인지요. 믿음 역시 은혜라는 것은 삶 자체가 은혜라는 것 아닌지요. 모든 것이 주의 은혜 아닌지요.

##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강같이

조 득 환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네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 같이 흐르게 할지어다(5:22~24).

### 처음에

구약의 예언자는 크게 구분하면 기원전 8세기부터 활동했던 문서 예언자와 그 이전(기원전 9세기)에 활동하여 주로 열왕기에 기술된 초기 예언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sup>1)</sup> 기원전 9세기의 초기 예언자로는 엘리야, 엘리사가 대표적입니다. 그들은 북 이스라엘의 오므리 왕조를 무너뜨리고 예후 왕조를 세워 정치적 혁명을 이룬 예언자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서 예언자들의 이름으로 편집된 구약의 예언서는 대예언서(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와 이어서 12책으로 이루어진 소예언서로 구성됩니다. 다만, 이렇게 대예언서, 소예언서로 나누는 것은 단지 책의 분량에 의한 구분이므로 그것만으로 그 예언자의 중요성이나 그 영향력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보는 구약성경 마지막에 실려 있는, 소예언서의 순서를 보면 맨 먼저 호세야가 나오고 뒤이어 요엘, 아모스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연대순으로 보면 아모스가 기원전 8세기부터 시작한 문서 예언자들(아모스, 호세

1) 関根正雄(1994), 聖書の信仰と思想, 教文館, p.124. 세키네 선생은 초기 예언자인 엘리야, 엘리사를 '행동의 예언자', 그 이후 책으로 이름을 남긴 16명의 예언자를 '말씀의 예언자'로 명명하기도 했다.

아, 이사야, 미가) 중에서도 그 활동시기가 가장 앞서 있어서 최초의 문서 예언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아모스의 사역은 후대의 예언자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오늘은 문서 예언자의 효시로 알려진 아모스를 개관하면서 예언자로서의 주장과 사상 그리고 연관되는 신학적 문제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 아모스 소개

앞에서 읽은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강같이 흐르게 하라”(5:24)는 이 말씀이 예언자 아모스를 상징적으로 가장 잘 드러내는 구절로 자주 인용이 됩니다. 이는 그 앞에 나오는 부분, 내게 너희들이 각종 제사를 드려도 받지 않고 돌아보지 않고 노래와 음악은 듣지 않을 테니 그치라(5:22-23)고 한 구절과 대비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는 또한 호세아서의 다음 말씀을 연상케 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호 6:6), 여기서도 보듯이 하나님은 형식적인 제사가 아니라 백성을 위한 정치와 사회를 원하며, 하나님이 어떤 속성을 가지신 분인지 알기를 바라십니다. 즉, 인간들이 하나님을 향해 바치는 온갖 예배와 제사보다, 사회적으로는 공정을 이루고 백성을 위한 공휼과 사랑의 정치(인애)를 펼쳐, 정의와 공의가 가득한 나라를 만들어 가기를 요구하시는 분입니다.

아모스와 호세아는 형식에 그친 제사의식을 철저히 부정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알기에 힘써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 외에도 몇 가지 공통점을 가집니다. 아모스와 호세아는 비록 활동기간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만, 비슷한 시기에 예언자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또한 구약에 등장하는 16명의 예언자 가운데 두 사람만이 북쪽 왕국 이스라엘을 향해서 말씀

을 전한 사역자이기도 합니다. 다만, 호세아가 북 이스라엘 사람인 반면, 아모스는 남왕국 유다 사람이었습니다.

아모스는 유다의 드고아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드고아는 예루살렘 남쪽으로 17km 정도 떨어진 마을이면서 척박한 광야지대였습니다. 그가 한 일(직업)은 양을 치는 목자이자 뽕나무를 기르던 농부였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선지자가 아니라 목자라고 말합니다(7:14). 어쩌면 선지자보다 자기가 생업으로 종사했던 목자(농부)로서의 정체성이 더 컸을지도 모릅니다. 요즘 말로 하자면 평신도 사역자나 자비량 선교사에 가까울 것 같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것도 양떼를 따르고 있을 때라고 하여(7:15), 예언자로 부름을 받기 전, 농사일에 충실하고 있을 때부터 이미 하나님과의 영적이고 인격적인 교감이 이어져 왔을 것이라고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아모스서 1장에 나오듯 아모스는 지진이 일어나기 2년 전에 여호와와의 말씀을 받았다고 합니다. 기록에 의하면 기원전 760년경에 상당히 규모가 큰 지진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모스는 아마도 그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예언자 활동을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모스가 활동했던 그 시기는 유다는 웃시야(B.C.784-746년),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B.C.787-746년)가 통치하던 때였습니다(1:1). 이 왕들이 다스리던 시기에는 남북 왕국 모두 상당한 번성기를 누리고 있었고, 특히, 북 이스라엘은 나라가 망하기 전 마지막으로 전에 없던 번영을 맞던 때이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군사적으로는 과거의 영토를 회복하고, 무역이 활발하여 경제적으로도 부유했고 정치적으로도 안정돼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아모스는 자기 나라도 아닌 북 이스라엘로 건너가, 주로 지배계급을 향해 하나님의 심판이 담긴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이국에서의 사역이라고 하는 환경적인 요인도 작

용하여 이스라엘에서 아모스의 예언자 활동은 그렇게 길지 않았습니다. 그가 활동한 기간을 유추할 수 있는 자료는 거의 없어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아마도 수개월, 길어도 1년을 넘기지 않았으리라는 게 전체적인 의견인 것 같습니다.

### 주변 민족을 통해 이스라엘을 심판함

아모스서는 예언자 아모스의 어록을 받아 먼저 그의 지인과 제자들이 편집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어록에서 책으로 최종 편집한 시기는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패망하고 난 뒤 오랜 기간, 여러 과정을 거쳐 남유다에서 이루어졌을 것으로 봅니다.<sup>2)</sup> 책을 편집하면서 예언자의 경고가 약 40년이 지난 후 그대로 실현된 것에 새삼 놀라지 않았을까 상상해 봅니다. 이스라엘 번영기에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예상 못했고, 아모스조차도 그 자신의 지식과 의지에 기반했던 예언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아모스서를 통해 예언이라 함은 단순히 걸로 드러난 정치, 문화적 비평에 그치는 어떤 것이 아니라, 그 근간에 있는 가장 근원적인 구조를 드러내는 행위<sup>3)</sup>임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아모스는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압도적인 권위에 굴복하여 그 예언을 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환상 그리고 소명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면서, 인간의 권력과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자유로운 하나님의 종으로 거듭났을 것으로 봅니다.

아모스서 1~2장에서는 이웃 여러 나라들을 질책하는 내용으로 시작하는데, 이 부분이 문학적으로도 매우 완성도 높게 그려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주변의 여러 민족들(아람, 블레셋, 페니키아, 에돔, 암몬, 모압, 유다)을 심

---

2) ATD·NTD聖書注解刊行会(1982), ATD旧約聖書注解 25 十二小予言書 上, p.249~251.

3) ATD·NTD聖書注解刊行会(1982), ATD旧約聖書注解 25 十二小予言書 上, p.256

판하면서 결국 아모스가 표적으로 삼고자 한 나라는 이스라엘이었습니다. 마치 원형의 바깥에서부터 점차 좁혀 들어가는 모양으로 이스라엘을 향하고 있고 그 죄상도 점차 심각해지는 모양새를 띄면서, 듣는 이로 하여금 어떤 반론도 할 수 없을 만큼 압도하게 만들었습니다. 도입부에서는 일체 이스라엘을 언급하지 않았기에 청중들은 아모스의 말에 점차 공감과 동의를 표하면서 집중하였을 테고, 아모스와 같이 하나씩 하나씩 실을 이어가면서도 역설적으로 자신들이 그 그물에 빠져드는 추이를 지켜보아야 했을 것입니다.)<sup>4)</sup>

아모스가 발한 이스라엘의 죄는 주변 민족의 죄보다 구체적으로 기술되었지만, 크게는 두 종류로 요약됩니다(1:6~8). 그 하나는 권력자들이 가난한 자를 부당하게 억압한 죄입니다. 아주 작은 빛을 진 것만으로도 그들을 노예로 팔아넘기고, 마치 가축처럼 취급하고, 쓸모가 없어지면 헌신짝처럼 버리면서도, 약한 자들의 어떤 법적인 권리도 보장하지 않는 죄를 일상적으로 범했습니다. 두 번째는 예배와 성전을 더럽힌 죄입니다. 지배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담보로 맡긴 옷을 예배 의식에 사용하고 빼앗은 술을 제사의 희생공물로 이용하면서도 어떤 위선적 죄책감도 없었음을 지적합니다. 아울러 이방인들의 우상 숭배적 배경에서 유입되어 온 성전에서의 음행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졌고, 결국에는 그 습관이 가족의 윤리적 기반마저 파괴하는 데까지 이른 점을 낱낱이 지적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합니다.

## 아모스와 아마샤의 갈등

4) ATD · NTD聖書注解刊行会(1982), ATD旧約聖書注解 25 十二小予言書 上, p.265~266. 주해서에서는 1~2장의 시(詩)가 이스라엘의 성소 즉, 제사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읽혔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스라엘에서도 성소 제사 중에는 고대사회에서 널리 행해졌던 '적을 향한 저주'가 어떤 특별한 의미와 위치를 가졌으리라 본다. 아모스는 처음에 청중과 같은 위치에 자신을 두고 시를 읊기 시작했다.

아모스는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와 종교 중심지 벧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모스서 7장에는 당시 이스라엘의 벧엘 성소를 관장하는 제사장 아마샤와 예언자 아모스와의 대결을 그리고 있습니다. 아모스가 이스라엘에서 어떻게 쫓겨났는지 또 어떻게 그의 예언이 종결되었는지를 암시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아마샤는 아모스를 향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벧엘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7:12-13).

이 짧은 구절에서 여러 가지를 읽을 수 있는데, 종교적 직업가로서의 제사장 아마샤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예언자 아모스와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아모스 예언의 핵심은 이스라엘의 심판이었습니다. 번영했던 나라는 망하고 권력을 자랑하는 여로보암왕은 죽고 지도층은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고 선언합니다(7:10~11). 이는 부유하지만 부패했던 나라와 지도층을 향해, 가감 없이 전달했던 하나님 말씀의 주된 내용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 왕에게서 부여받은 권력을 배경으로 하는 아마샤는 이스라엘의 정치적 안정을 저해하는 아모스의 예언을 도무지 용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소와 백성들의 안녕보다도 ‘왕의 성소와 나라의 궁궐’을 먼저 걱정해야만 하는 입장이었고, 그러한 처지에 놓인 신분이었음을 스스로 고백합니다.

아마샤의 발언과 처신은 다른 편에서 보자면, 아모스에게 호의적인 부분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는 아모스를 체포하고 처벌하도록 왕의 손에 넘기기 이전에, 아모스에게 더 이상 이스라엘에서 예언 활동을 하지 말고

너의 나라 유다로 가서 예언을 하고 거기서 떡을 먹으라고 경고를 합니다. 아마샤는 아모스가 직업적인 예언자였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나는 직업적 예언자가 아니고, 내 직업은 양을 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농부”(7:14)라고 되받아치는 대목도 나옵니다. 주해서에서는 아마샤가 아모스를 잡아들이지 않은 이유로서, 아모스와 그의 말씀에 대한 두려움이 작용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sup>5)</sup> 비록 그는 직업 종교가였지만 제사장으로서, 아모스의 태도와 말씀에서 감출 수 없는 하나님의 권위를 발견하고 두려움을 느꼈다고 봄이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아모스는 이런 경고 섞인 충고에 대해서 아마샤를 향해 엄청난 저주의 말을 던집니다. 아내는 창녀로 팔리고 아들들은 칼에 엎드려지고 재산은 분해되고 아마샤 본인도 포로로 끌려가 결국 죽게 될 것이라 예언합니다(7:17). 그러나 이 저주는 아모스 개인의 감정에서 발로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패망하고 난 후에는 이스라엘 지도층에서 일어날 일들이었습니다. 아모스는 하나님과의 영적 교감과 이스라엘의 부패상에 눈감고 있는 제사장 아마샤에게 다시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로 더 큰 경고를 한 것입니다.

아마샤가 왕과 나라의 지배층에게 모든 관심과 시선을 두고 있었다면, 아모스는 하나님과 부패한 권력에 압제받았던 백성들에게 집중하였습니다. 그 결과 아마샤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제사장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의 사역을 방해하고 저지하는 과오를 범하게 됩니다. 그 까닭은 현재의 정권이 흔들려서 자칫 자신의 권력에도 피해가 오지 않을까 하는 안위의 불안이 배후에 자리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비단 과거의 사건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종종

---

5) ATD·NTD聖書注解刊行会(1982), ATD旧約聖書注解 25 十二小予言書 上, p.376.

드러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단지 종교계뿐만 아니라, 정치권을 비롯한 우리 사회 곳곳에서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 모습들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진실을 잘 분별하는 눈이 필요합니다.

### 이스라엘의 부패와 신관(神觀)

단적으로 제사장 아마사의 발언과 행위에서도 드러나듯이 이스라엘의 죄악과 부패는 그들이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인식, 하나님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는가 하는 그들의 신관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아모스의 심판 예언이 아시리아 제국의 팽창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아시리아의 부상은 8세기 중엽 팔레스타인 지역의 커다란 위협이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5:27).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6:14).

다메섹은 아람의 중심도시였습니다. 한때 이스라엘의 지배하에 들어갔으나 후에는 아시리아가 침공하여 이 도시를 함락시킵니다. 하나님이 다시 아시리아를 들어 이스라엘을 멸망케 하고 지배계급을 포로로 끌려가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아시리아를 일으켜 이스라엘을 칠 때에, 이스라엘이 회복한 영토 북쪽 끝(하맛)에서부터 남쪽 끝(아라바)까지 이르게 하겠다고 말씀이 이어집니다. 군사대국의 침략으로 인한 민족의 몰락을 전제

로 했을 때, 이스라엘은 비로소 세계가 자기 민족과 나라를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제국을 들어 이 민족을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서야, 그들의 신이라고 알았던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세계를 지배하시는 분임을 알게 됩니다.<sup>6)</sup>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을 경험하기 전까지 민족적 심판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로보암 2세의 시리아 전쟁의 승리, 그리고 정치적 안정과 경제적 번영에 취하여 지극히 안이하고 왜곡된 민족 신의 영역에 하나님을 가두어 두었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 행위의 모든 걸 용인하고 기뻐하고 축복하는 그들만의 하나님 인식이 사회적 부정과 신앙적 타락으로 연결되었습니다. 그와 대조적으로 아모스는 이스라엘 선민의식에 절어있는 당시에 만연했던 일반적인 생각과는 사뭇 다른 차원에서 그 사상을 해부하였습니다.<sup>7)</sup>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3:2)

이 구절의 전반부에는 선민사상이 흐르지만, 후반부는 은혜와 축복이 아니라 심판의 예언입니다. 아모스는 하나님의 선민사상을 이스라엘 백성의 관점에서 볼 것인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것인가 하는 부분을 문제 삼았습니다.<sup>8)</sup> 선민 이스라엘의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은 그들의 과오도 너그럽게 보시고, 용서하실 때도 인색하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상과 주장이 늘 한편에 있습니다.

6) 関根正雄(1980), 関根正雄著作集 第6卷 旧約学論文集(中), p.283, 新地書房

7) ATD·NTD聖書注解刊行会(1982), ATD旧約聖書注解 25 十二小予言書 上, p.282~283.

8) ATD·NTD聖書注解刊行会(1982), ATD旧約聖書注解 25 十二小予言書 上, p.283.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출34:6b~7a)

그러나 아모스처럼 하나님의 관점에서 선민을 생각한다면, 다시 말해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데까지 궁극적으로 이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 그들의 일반적인 생각과는 정반대로, 또 그들에게는 매우 역설적으로 생각될 수밖에 없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아모스는 하나님의 선민에서 이스라엘의 특권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아, 나에게는 너희가 에티오피아 사람들과 똑같다. (9:7a, 새번역)

예언자 아모스가 볼 때 선민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자유의 영역에 속합니다. 이스라엘 선택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구원의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데 있으며, 민족적 관점의 인간적인 이해관계에 얽매어서는 생각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아모스에게 선민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 이전에, 하나님에 대한 특별한 복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은혜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진실과 하나님의 구원까지도 깊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지나쳐갈 뿐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들의 요구라는 관점에서만 생각했을 때, 아모스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를 판단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아모스는 민간에 널리 퍼졌던 선민의 생각과는 정반대의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선민에 대한 은혜에서 넓고 넓은 하나님은 심판의 준엄함에서도 추호의 여지가 없는, 같은 의지를 가진 분이 라는 점을 아모스는 분명히 하였습니다.<sup>9)</sup>

## 하나님, 생명, 선(善)

그렇다면 예언자 아모스가 최악에 빠진 이스라엘을 향해 제시한 구원의 길은 무엇이였을까. 아모스서에는 여호와 하나님, 생명과 삶, 선을 찾고 악을 멀리하라는 말씀이 서로 연결되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5:4b)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5:6a)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5:14a)

하나님과 생명과 선은 분리될 수 없으며, 이스라엘이 생명과 선의 근원인 참된 하나님에 머물러 있을 때 비로소 구원에 이를 수 있음을 역설합니다. 여기서 생명과 선은 맨 처음 읽었던 구절에 나오는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강같이 흐르게 하라(5:24)는 말씀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과 정의, 공의는 구약 예언자의 입을 통해서 구체적이고 공적인 내용으로 표출됩니다. 우상숭배를 하지 말 것과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거나 착취하지 말고, 가난하다고 재판에서 부당한 판결을 내리게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구약은 사회적 공동체를 중시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거룩함도 공동체 안에서 찾고자 했습니다. 특히, 구약에서 말하는 거룩한 삶은 개인의 자선과 양심에 맡기기보다 제도와 구조를 통해 확립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레위기 율법에서 잘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 십계명에서 안식일 준수와 부모 공경에 대해 언급한 것도 가난한 사람들도 노동하지 않고 쉴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며,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 화목과 평안이 거룩한 삶의 핵

---

9) ATD·NTD聖書注解刊行会(1982), ATD旧約聖書注解 25 十二小予言書 上, p.283.

심에 있기 때문입니다.<sup>10)</sup>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5:15a)

‘성문에서 정의를 세우라’고 한 부분을 새번역에서는 “법정에서 올바르게 재판하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다른 참고 문헌에서는 ‘성문’이라 함은 ‘고대 이스라엘에서 시장, 마을회의, 재판이 열리는 곳으로 지역 공동체의 생활 중심지’라고 합니다.<sup>11)</sup> 법정의 역할도 하며, 시장도 서고 마을 회의도 하는 생활의 중심지에서 정의를 세우라고 하였습니다. 즉, 가난한 사람도 억울한 일이 없는 공평한 재판과, 시장 상행위에서의 공정한 상거래, 평범한 일반 시민들도 참여하고 민중의 의견이 반영되는 회의와 사회적 결정이 이루어져야 함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는 이스라엘 사람들뿐 아니라 이방인과 나그네까지 포함하여 함께 살아가는 공적인 삶의 영역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정의를 세우는 것이 선이며 하나님을 찾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달리 말하면 이스라엘의 멸망은 이러한 사회적 정의를 무시한 채 하나님의 신앙을 사적인 영역으로 축소하고 종교적인 영역에 가두어 두면서, 인류의 보편적인 하나님을 민족의 신으로 격하하여, 이스라엘 지배층들이 원하는 대로 채워 주는 우상으로 만들어 버린 것에 기인합니다. 아모스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개입과 영적인 눈을 통해 이스라엘 죄악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을 간파하고, 하나님의 입술로서 가감 없는 심판의 경고를 발하였습니다. 문서 예언자의 효시 아모스는 그야말로 심판의 예언자였으며<sup>12)</sup>,

10) 김근주(2017), 복음의 공공성, p.229, 비아토르

11) 김근주(2017), 복음의 공공성, p.377, 비아토르

12) 関根正雄(1994), 聖書の信仰と思想, 教文館, p.148. 세키네 선생은 아모스 9:11절 이하의 이스라엘 회

그 철저한 심판 위에 비로소 하나님 구원의 씨앗이 싹틀 수 있음을 역설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 맺으며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볼 때 분명 아시리아 제국의 침략에 의해 패망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비추어 보면 그 전에 이미 내부적으로 지배계급을 중심으로 하는 부패의 고리가 만연하여 스스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언자 아모스는 이스라엘 죄악에 대해 하나님 심판의 메시지로 그들의 종말을 거듭 반복해서 경고하였으나, 이스라엘은 돌이키지 못하고 역사의 수렁으로 빠져듭니다.

예언자의 눈으로 이스라엘의 멸망을 좀 더 본질적으로 들여다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받아들였느냐 하는 부분과 연결됩니다. 결국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느냐 하는 문제이면서 하나님과 어떻게 대면하느냐에 대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예언자 아모스는 근본에 있어서 이 부분을 문제 삼고 있으며, 이후의 예언자들 또한 핵심 메시지에서는 아모스의 예언 형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구조적 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그와 마주하느냐는 신학적인 문제임과 동시에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신앙의 영역이기도 합니다. 아울러 한 민족, 국가와 결부될 때에는 역사적인 큰 흐름을 형성하게 됨을 성경의 말씀과 여러 세계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너의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4:12a, 새번역) 아모스는 특별한 상황에 놓인 이스라엘

---

복에 대한 예언은, 북왕국 이스라엘과 무관한 남왕국 다윗 왕조를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분명 후대의 가필이라고 보고 있으며, 아모스서는 심판의 메시지로 종결되었다는 견해를 갖고 있다.

과 참된 하나님과의 만남을 주선하고자 위험을 무릅씁니다. 창조주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은 한 인격에서부터 한 사회, 국가, 그리고 전 인류, 더 확장한다면 온 우주에까지 이르는 존재의 목적이자 원리라고 해야 하겠습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은 그 바탕에 있는 하나님의 의(義)와 사랑(愛)과 거룩함(聖)을 드러내면서 거기서 떠나지 말 것을 강권합니다. 그것이 민족의 살길이요 구원이라고 거듭 회개를 촉구합니다. 2700여 년 전 예언자들이 강조했던 하나님의 말씀은 비단 이스라엘에만 해당되지 않으며 오늘날에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보편적이고 현실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개개인도 모두 서로 다른 개별적인 상황에 놓여 있지만 하나님과의 만남이 필연적으로 요구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우상을 만나게 됩니다. 우상이라 함은 ‘존재하지 않는 어리석은 형상’에 불과하므로 결국 아무도 만나지 않는 꼴이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만나지 못한 채 인생을 산다는 결론에 이릅니다.<sup>13)</sup> 아울러 이는 한 개인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사회 공동체와 국가와 인류 전체의 문제로도 확장해서 생각해야 할 부분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현대 사회의 지극히 복잡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점차 고도화하는 기술력을 쫓아가지 못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의 큰 흐름을 읽어 내지 못할 때는 왠지 무기력에 빠지기도 합니다. 사회 곳곳은 진실과 거짓이 뒤섞여 그를 분별해 내는 것도 녹록한 일이 아닙니다. 어쩌면 젊은 세대에서 이런 현상과 갈등이 더 크게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세상 어디가 숲인지, 어디가 늪인지 그 누구도 말을 않네.”<sup>14)</sup>라는 대중가요

---

13) 關根正旌(1994), 聖書の信仰と思想, 教文館, p.142. 세키네 선생은 독일 신학자 넬과 부버를 인용하여, 아모스는 ‘하나님(神)인가, 무(無)인가’, 그 선택을 강요하고 있으며 그것이 곧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는 말씀에 대한 적극적인 의미의 해석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노랫말 속에서 방황하는 청춘의 모습이 보이는 듯합니다. 그러나 이는 이미 기성세대가 거쳐 왔던 자화상이기도 합니다. 나이와 세대를 막론하고 어느 시대에도 참된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성경의 메시지를 내면화하는 과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영적인 하나님 말씀이 말씀의 통로로 제시하시는 선과 구원의 길을 놓지 않을 때, 비로소 자아를 넘어선 분별력과 의(義)의 힘으로 그 시대를 살아갈 수 있겠습니다.

---

14) 조용필의 노래, '꿈' 중에서

#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는 큰 능력을 어디에 어떻게 쓰셨는가

배 지 현

학교에서 아침마다 성경을 1장씩 읽고 있는데,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왜 알리지 말라고 하셨는가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성서의 기적을 읽으면 이런 기적이 내 눈앞에 일어나는 것을 보거나, 사실임이 명확하게 증명된다면 예수님을 믿을 텐데 라고 생각하면서, 예전 과거에 일어났던 기적이 현재의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하는 질문도 있었습니다.

성서에 나오는 수많은 기적이 사실이라면 믿을 텐데 하는 마음으로 사실임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찾고자, 의심의 눈으로 성서를 읽으면 또 전혀 오리무중에 빠집니다.

예수님은 왜 기적을 행하실 때마다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 1. 기적을 행하는 큰 능력에 관한 사탄의 유혹

### (1)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광야에서 사탄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누가복음 4장 9-13] 9 예수를 예루살렘으로 이끌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여기서 뛰어 내려 보아라. 10 하나님이 너를 위해 천사들에게 명해 너를 지키실 것이다. 11 그들이 손으로 너를 떠 받쳐서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12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13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동안 떠나니라.

누가복음에서 세 번째 시험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신전에서 뛰어 내려 보라, 천사들이 발이 닿지 않게 보호해 줄 것이라고 사탄이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하나님과 같은 본질을 가졌음을 뜻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으나 몸소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워서 완전하게 되셨고,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sup>15)</sup>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진리의 영인 성령을 보내주셔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영원히 함께 해 주십니다.<sup>16)</sup> 신앙이란 사람의 아들인 예수님을 하나님과 같은 본질과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sup>17)</sup>

15) [히브리서 5:8-9] 8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으나 몸소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워서 9 완전하게 되셨고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으며

[요한복음 14:6-7,10] 6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7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제 너희는 내 아버지를 알고 있으며 그분을 이미 보았다. 10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내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자기의 일을 하신다.

[요한복음 3:16-17] 16 하나님이 세상을 무척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마저 보내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17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려고 아들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보내셨다.

16) [요한복음 16:7-8,13-15] 7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8 그가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의 잘못을 깨우치실 것이다. 13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는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듣는 것만 일러주실 것이요,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 주실 것이다. 14 또 그는 나를 영광되게 하실 것이다. 그가 나의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15 아버지께서 가지신 것은 다 나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령이 나의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 주실 것이라고 말한 것이다.

[요한복음 14:15-18, 25-26] 15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16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18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 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 26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요한1서 5:5-7] 5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이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겠습니까? 6 하나님의 아들은 물과 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물로만 오신 것이 아니라 물과 피로 오셨습니다. 7 이 사실을 증거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이것은 성령님 자신이 진리이시기 때문입니다.

17) [요한1서 4:9-10,15] 9 하나님은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가 그를 통해 살 수 있게 하심으로 우

사탄은 성서의 말씀을 사용해 유혹합니다.

[시편 91:11~14] 11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네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12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13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14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그 손으로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신다고, 시인은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거라는 높은 신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를 인용해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신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천사들이 발을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는 것을 보인다면 하나님의 아들임을 모두가 알게 될 것이라는 사탄의 유혹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쫓아냈습니다.

사탄은 예수님께 신전 꼭대기에서 떨어져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자신을 높이는데 그 큰 능력을 사용하라고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가장 거룩한 것으로 예수님 자신을 높이라고. 가장 거룩하고 귀한 종교적인 것으로 영광스럽게 자신을 높이라고 합니다.

---

리에게 자기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10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 우리를 죄에게 구원하는 제물로 삼아주셨습니다. 15 누구든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계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서 살게 됩니다. [요한복음 20:31] 이 책을 쓴 목적은 다만 사람들이 예수는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또 그렇게 믿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성령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마태복음 16:16] 시몬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사도행전 9:18-20]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고 그는 다시 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일어나 세례를 받은 후 19 음식을 먹고 힘을 얻었다. 사울은 며칠 동안 다마스쿠스에 있는 신자들과 함께 지냈다. 20 그러고서 그는 곧 여러 회당으로 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외치기 시작했다.

우리에게도 늘 이런 유혹이 있습니다. 자녀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고 하면서도 자신이 지혜와 용기를 받아 그 능력으로 일하기 바라고,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드러낸다고 하면서도 자신을 높여 주시기를 바라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자 하는 아담의 원죄가 늘 빈틈을 노립니다.

(2) 기적을 행하는 힘과 능력에 대해 - 거짓 예언자와 거짓 그리스도에 대한 경고

예수님은 세상의 종말에 대해,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예언자들이 나타나 큰 기적과 놀라운 일을 행하며 선택된 사람들까지 속이려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4-5, 23-24] 4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5 너희는 아무에게도 속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이다' 라고 말하며 많은 사람을 속일 것이다. 23 그때 누가 너희에게 '그리스도가 여기 계시오', '저기 계시오' 하더라도 믿지 말아라. 24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나서 큰 기적과 놀라운 일을 일으키면서, 할 수만 있으면 선택받은 사람들까지도 홀릴 것이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온갖 박해와 환난을 받으면서도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께 충성된 교회였는데요, 주님의 재림을 강하게 대망하고 있었지만, 재림에 대한 그릇된 생각으로 성도들의 신앙이 흔들리는 상황<sup>18)</sup>에 있었습니다. 바울은 사탄의 능력으로 나타나 온갖 거짓된 기적과 놀라운 일을 보이는 무법자에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경고합니다.

---

18) [데살로니가후서 2:2] 여러분은, 영이나 말이나 우리에게서 받았다고 하는 편지에 속아서, 주님의 날이 벌써 왔다고 생각하게 되어, 마음이 쉽게 흔들리거나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데살로니가 후서 2:3-4] 3 여러분은 아무에게도 어떤 방식으로든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날이 오기 전에 먼저 믿음을 배신하는 일이 생기고, 불법자, 멸망의 자식이 나타날 것입니다. 4 그는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이나 예배의 대상이 되는 모든 것에 대항하고, 그들 위로 자기를 높이는 자인데,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9-12] 9 그 무법자는 사탄의 능력으로 나타나서 온갖 거짓된 기적과 놀라운 일을 보이며 멸망할 사람들에게 갖은 속임수를 다 쓸 것입니다. 10 그들은 진리를 사랑하지 않으므로 구원을 받지 못해 결국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11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유혹을 보내 거짓을 믿게 하실 것입니다. 12 그것은 진리를 믿지 않고 악한 것을 좋아하는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병든 사람을 고치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물위를 걷는 등 수많은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신전에서 뛰어내려 발이 바위에 닿지 않게 하는 능력을 본다면, 하나님의 전에서 그런 기적을 본다면, 표면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당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예수님께 마음이 끌렸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에 어떤 역할도 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회당장인 아이로의 딸을 살리신 후에도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당부하셨습니다.<sup>19)</sup> 회당장은 종교적으로 사람들로부터 큰 신뢰를 받기 때문에, 죽은 사람을 살리신 예수님의 기적을 누구보다 확실하게 증명해 줄 수 있는데도 알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성경 곳곳에 기적을 행하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시고<sup>20)</sup> 사람들의 마음이 확 끌리려고 하

---

19) [누가복음 8:40-56] 56 아이의 부모는 놀랐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명하셨다.

20) 눈 먼 두 사람을 고치시고 [마태복음 9:30] 그러자 그들의 눈이 열렸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엄중히 다짐하셨다.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 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고치시고 [마가복음 7:36]

면 오히려 해산시키시고 혼자 기도하신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sup>21)</sup>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예언자들은 큰 기적과 놀라운 일을 행해, 사람들을 자신에게 끌어당기고, 가장 거룩하고 귀한 것으로 자신을 높이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습니다. 예수님은 무엇보다 우선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셨으며, 그 방식에도 우리의 생각과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2.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의 행보 - 예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보이시고 온전히 순종하셨다

2-(1) 실제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는 큰 능력을 어디에 사용하셨는가?

[요한복음 7장 17-18] 17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18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증거하는 사명을 띤 예언자였습니다. [요한복음 1:29-30<sup>22)</sup>, 5:31-33<sup>23)</sup>]

---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명하셨으나, 말하면 말할수록 그들은 더욱더 널리 퍼뜨렸다.

**나병환자를 깨끗하게 하시고 [누가복음 5:12-16]** 13 ...곧 나병이 그에게서 떠나갔다. 14 예수께서 그 사람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명하시고... 15 그러나 예수의 소문이 더욱더 퍼지니, 큰 무리가 그의 말씀도 듣고, 또 자기들의 병도 고치고자 모여들었다. 16 그러나 예수께서는 외딴 데로 물러가서 기도하셨다.

21) **뺨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오천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행하시고 [마태복음 14:23]** 무리를 헤쳐 보내신 뒤에, 예수께서는 따로 기도하시려고 산에 올라가셨다. 날이 이미 저물었을 때에, 예수께서는 홀로 거기에 계셨다. [요한복음 6:15]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와서 억지로 자기를 모셔다가 왕으로 삼으려고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물러가셨다.

22) [요한복음 1장 29-34] 29 이른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예수님의 본질을 예언하고, 성령님이 하늘에서 비둘기처럼 내려와 머무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했습니다.<sup>24)</sup>

[누가복음 7장 18-23] 18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요한에게 알렸다. 19 요한은 자기 제자 가운데서 두 사람을 불러, 주님께로 보내어 “선생님이 오실 그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하고 물어보게 하였다. 20 그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세례자 요한이 우리를 선생님께로 보내어 ‘선생님이 오실 그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하고 물어 보라고 하였습니다.” 21 그 때에 예수께서는 질병과 고통과 악령으로 시달리는 사람을 많이 고쳐주시고, 또 눈먼 많은 사람을 볼 수 있게 해주셨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가서 요한에게 알려라. 22 눈먼 사람이 다시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걷고, 나병환자가 깨끗해지고, 귀먹은 사람이 듣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23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세례자 요한은 그의 제자들에게서, 나병환자<sup>25)</sup>, 중풍병자<sup>26)</sup>, 백부장의 종을 낳게 하고<sup>27)</sup>,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sup>28)</sup> 놀라운 기적의 소식들을 모두

---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20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32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 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34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 이심을 증거하였노라 하니라.

23) [요한복음 5장 31-33] 31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거하면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되 32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그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33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였느니라.

24) [요한복음 1:29-34]

25) 누가복음 5:12-16

26) 누가복음 5:17-26

들었음에도, 예수께 제자들을 보내 ‘참으로 오실 이가 당신이오니까 다른 이를 기다리오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눈먼 사람이 다시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걷고, 나병환자가 깨끗해지고, 귀먹은 사람이 듣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고 답합니다.

예수님은 그 절대적인 큰 능력을 가장 괴로워하는 사람, 병들어 사회적으로 버려진 사람, 약한 사람 - 그 한사람 한사람을 위해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본질을 가지시므로 정의, 공의가 강처럼 흐르도록 가난하고 병들고 약한 사람들을 위하시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로서 너무나 큰 능력을, 너무나 작고 보잘 것 없는 곳에만 쓰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증거할 사명을 가진 요한조차도 다른 이를 기다려야 하는가 하고 묻습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는 엄청난 능력을, 옆을 지나며 만나는 극히 소수의 약하고 버려진 것 같은, 보잘 것 없는 사람들에게만 쓰십니다. 오직 거기에만. 세상에는 약하고 버려진 것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요? 사회적으로 약한 세력이 여전하다면 앞으로도 약하고 버려진 것 같은 사람은 계속 생겨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크나큰 능력을 가지고 계시지만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는 사람의 수는 극히 소수이고, 세상에는 그런 사람이 무수하게 많습니다. 메시아라면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약한 세력을, 약한 힘을 멸망시켜 많은 사람들을 구해야 하는 게 아닌가요?

현실의 매일에서 어둠과 악의 세력이 막강하게 지배하는 듯 보일 때, ‘정의는 나쁜 세력, 나쁜 지배자를 심판해야 하는데, 어째서 하나님은 그들을 치지 않으시는가?’하는 의문은 늘 있었습니다.

---

27) 누가복음 7:1-10

28) 누가복음 7:11-17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은 크나큰 기적을 행하는 막강한 능력을, 힘없고 약한 사람, 사회에서 버려진 것 같은 사람, 악령에 들린 사람,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 한센병에 걸린 사람 등, 너무나 흔하고 보잘 것 없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만 쓰십니다.

예수님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고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한다고 하셨습니다.<sup>29)</sup>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 어느 곳에나 낙오된 사람, 가난한 사람, 본인의 부족과 잘못으로 고통 받는다고 보이는 사람, 사회적으로 버림받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불행하다고 운명을 탓할 상황에 처한 사람들(병의 고통 중에 있거나, 사고로 또는 태어나면서부터 심한 장애를 가지거나,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으로 아파하거나)은 세상 곳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예수님을 통해 그 절대적 사랑을 보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정의는 사회구조를 바꾸어 심판의 두려움으로 나쁜 짓을 하지 않게 하는 표면적인 것이 아니라, 말과 행동의 동기까지 날카로운

---

29) [요한복음 5:18-19, 5:30, 6:38, 14:10]

**[요한복음 5:18-19]** 18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 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19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 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요한복음 5:30]**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고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요한복음 6:28-38]** 28 그들이 예수께 물었다.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됩니까?”

29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30 그들은 다시 물었다. 우리에게 무슨 표징을 행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보고 당신을 믿게 하시겠습니까. 당신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33 하나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35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주리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37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사람은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또 내게로 오는 사람은 내가 물리치지 않을 것이다. 38 그것은 내가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왔기 때문이다.”

칼처럼 꿰뚫어 보시므로, 전 존재의 방향전환, 회개를 통해 한 사람 한 사람을 의롭게 해주심으로 성취됩니다. 의롭게 된다는 그 높은 도달점을 지적 능력이나 선한 의지를 가진 특별한 몇 사람이 아니라 너무나 흔하고 보잘 것 없는 작은 사람에게도, 일방적인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가장 약한 사람, 모두에게 버림받은 것 같은, 보잘 것 없는 한 사람의 회개(하나님께로 방향전환)를 절대적으로, 그 무엇보다 귀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sup>30)</sup>

2-(2) 하나님의 뜻과 나라를 이루는 방식 -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주심을 믿고 온전히 맡기고 순종하셨다

이사야서 52장 끝에서 53장까지 고난의 종으로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2:13-53] 13 나의 종이 매사에 형통할 것이니, 그가 받들어 높임을 받고 크게 존경을 받게 될 것이다. 14 전에는 그의 얼굴이 남들보다 더 안 되어 보였고 그 모습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욱 상해서 그를 보는 사람마다 모두 놀랐다.

3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고 슬픔과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되었으니 사람들이 그를 외면하고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4 그는 우리의 질병을 지고 우리를 대신하여 슬픔을 당하였으나 우리는 그가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 고난을 당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5 그가 우리의 죄 때문에 찔림을 당하고 상처를 입었으니,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다. 6

---

30) [누가복음 15장] 잃어버린 양의 비유. 7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아흔아홉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 / 되찾은 드라크마의 비유. 10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기뻐할 것이다.

우리는 다 길을 잃은 양처럼 제각기 잘못된 길로 갔으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7 그가 곤욕을 당하면서도 침묵을 지켰으니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양처럼 그의 입을 열지 않았다. 8 그가 체포되어 심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사람들 중에 그가 죽음을 당하게 된 것이 자기들의 죄 때문이라고 누가 생각했겠는가? 9 그는 범죄하거나 거짓말을 한 적이 없었으나 악인들처럼 죽음을 당하여 부자의 묘실에 묻혔다. 10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그가 상처를 입고 고통을 당한 것은 내 뜻이었다. 그가 죄를 속하는 희생제물이 되면 그는 자손을 보게 될 것이며 그의 날이 장구할 것이니 그를 통해 내 뜻이 성취될 것이다. 12 그러므로 내가 강하고 위대한 자들의 영예를 그에게 주겠다. 그는 기꺼이 자기 생명을 바쳐 범죄자처럼 되었으며 많은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그들이 용서받도록 기도하였다.

하나님은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한 외아들을 가장 무력한 모습으로 가장 낮고 비참한 곳에 서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종죄인으로 모욕과 멸시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순종하시며 가장 낮은 곳에 처했습니다. 그리고 그 낮은 곳에서 하나님에 의해 가장 높게 올려졌습니다.(이사야서 52:13, 53:12) 이 일이 이미 예수님 탄생 550년 전에 예언되었고 그 약속대로 이루어졌습니다.<sup>31)</sup>

하나님이 쓰시는 종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가는 구약성서의 인물에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바로 왕이 출애굽을 허락하기까지 10가지 기적,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광야에서 물을 내는 기적 등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많은 놀라운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40년의 광야생활 동안 음식, 물,

---

31) 이사야서 52:13-53

이민족과의 싸움 등으로 고통과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이집트 노예 생활을 그리워하며 모세를 탓하고 원망했고, 그런 군중들<sup>32)</sup> 앞에서, 모세는 무력하고 무능한 채 오직 하나님께 고통스럽게 호소할 뿐이었습니다.<sup>33)</sup>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탈출할 때부터 놀라운 기적을 계속 보고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어려운 상황이 생길 때마다 모세와 아론을 탓하고 원망하며, 기적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더 큰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수많은 기적을 경험해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지도자 모세는 오직 무력하고 비참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호소할 뿐이었습니다. 많은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지만 권위로 존경받는 게 아니라,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분노 어린 원망을 듣고, 누가 그런 권위를 주었냐고 추궁당하기도 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놀라운 기적을 행했지만, 동시에 약하고 무력하고 무능한 채로 오직 하나님께 호소할 수밖에 없었고,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는 엘리야가 하나님의 종으로 얼마나 탁월한 힘을 받고 있었는가 하는 영광스런 모습이 나옵니다. 구약시대 예언자 엘리야는 바알의 예언자 450명과의 대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물에 흥건히 젖은 소 재물을 불로 태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 바알의 예언자들을 모두 죽이는 승리를 얻었고, 비가 온다는 예언도 적중했습니다.<sup>34)</sup> 하나님

32) [출애굽기 15:22-27] 수르 광야에서 3일간 물을 얻지 못해 원망 / [출애굽기 16:1-36] 출애굽 2개월 후 신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 원망 / [출애굽기 17:1-7] 맛사(므리바)에서 물이 없어 원망 / [민수기 11:4-35] 만나로 먹여주시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고기가 없다고 불평. / [민수기 13:31-14:10]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 장대한 자손들을 보고 두려워하며 원망

33) 출애굽기 17:4 모세가 주님께 부르짖었다. 이 백성을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은 지금이라도 곧 저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 민수기 11:15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찌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나로 나의 곤고함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 민수기 14:5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의 종 엘리야의 이런 영광스런 모습 바로 뒤, 열왕기상 19장에는 이세벨의 경고를 받고 두려워하며 죽음을 바라는 데까지 기진맥진한 엘리야의 모습<sup>35)</sup>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에 선다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낸다고 하면, 믿는 자녀에 합당한, 승리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생각하지만, 오히려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밖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무능하고 무력한 모습으로, 오직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모습이 공통됩니다.

믿는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고 하면서도 뭔가를 이룰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구하며, 자기 영광을 구하는 아담의 원죄대로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무능하고 무력하게, 오직 하나님께 호소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자리에 서고 싶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곳에는, 자기 영광 자기의의 불순한 것이 끼여들 여지가 없이, 낮고 비참한 자리에 무력하게 서게 하시고, 그의 자녀를 참된 믿음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 3. 성령으로 회개를 통해 참된 믿음으로 이끌어 주신다.

회개란 자기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삶의 전 존재로서 방향전환하는 것입니다. 반성은 자신의 잘못을 돌아봐서 다시는 잘못하지 않고자 노력하는 것으로 회개와 다릅니다.

---

34) [열왕기상 18장]

35) [열왕기상 19:1-18] 2 그러자 이세벨은 엘리야에게 심부름꾼을 보내서 말하였다. “네가 예언자들을 죽였으니 나도 너를 죽이겠다.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너를 죽이지 못하면, 신들에게 천벌을 달게 받겠다. 아니 그보다 더한 재앙이라도 그대로 받겠다. 3 엘리야는 두려워서 급히 일어나 목숨을 살리려고 도망하여, 유다의 브엘세바로 갔다. 그곳에 자기 시중을 남겨 두고 4 자신은 홀로 광야로 들어가서, 하룻길을 더 걸어 어떤 로뎀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에 앉아 죽기를 간청하며 기도하였다. 주님, 이제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나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나는 내 조상보다 조금도 나을 것이 없습니다.

악한 귀신이 나온 집으로 되돌아가 보니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어 자기보다 더 악한 일곱 귀신을 데리고 들어와 처음보다 형편이 더 비참하게 되었다는 비유(누가복음 11:24-26)에서, 반성은 악한 귀신 하나를 쫓아내고 깨끗하게 청소하는 것과 같습니다.<sup>36)</sup> 생각과 마음을 깨끗하게 청소하더라도 비어 있으면 곧 일곱 사탄이 들어와 처음보다 더 나쁘게 되는 경우는 흔하게 경험합니다.

모세의 놀라운 기적을 직접 보고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으로 나가지 못하고 결국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했으며, 예수님 바로 곁에서 수많은 기적을 직접 보고 경험한 제자들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습니다. 또한 사탄도 기적을 행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말씀은 수수께끼 같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내 마음이 깨끗한 빈집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계신 상태입니다.

믿음으로 삶의 전 존재가 하나님 중심으로 방향 전환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바라고 구하게 되고, 이로써 의롭게 됩니다.

믿는다고 말하면서 하늘나라의 좋은 것, 큰 능력과 사람들도 자기에게로 끌어당기려는 것은 자기 영광의 아담의 원죄에 종노릇 하는 것입니다.

자녀로 부르심을 받아 값없이 용서와 인도하심의 은혜를 받은 자이지만, 계속 믿음의 반석에 굳건히 서지 못하는 것이 괴로울 때가 많습니다.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줄 믿고 따르려 하지만 믿음이 너무 약하고 흐릿하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기도가 바탕임을 알지만 형식적으로 미지근해지는 불신의 참담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력하고 무능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 빵과 물을 주시며 인도하시고, 거대한 군중들의 불평과 분노 가운데 무력한 모세에게, 기적으로 한 발 디딜 수 있

---

36) 김교신 전집 인생론 '고백의 효과' 중에서

는 길을 열어 주시는 인도하심이 더 크고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누가복음 9장 1-6절에는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에게 악한 영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능을 주시고 여러 마을로 보냅니다.<sup>37)</sup> 예수님을 따르던 지 불과 1-2년 밖에 되지 않았고 예수님의 사명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했지만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쳤습니다. 신앙적으로도 인격적으로도 미숙한 제자들의 이런 능력이 놀라운데, 또 한편 누가복음 9장 37-43절에서는 귀신 들린 아이의 부모가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달라고 청했지만 제자들이 하지 못해 예수님께 ‘믿음이 없고 비뚤어진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며 너희를 참아 주어야 하겠느냐’는 걱정도 들었습니다.<sup>38)</sup>

현재의 일상에도 이런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앞이 어둡고 막막해 기도와 간구로 예수님을 바라보며 걸으면 겨우 나갈 길이 생기는 기적을 맛보고 찬송하는가 하면, 동시에 믿음이 미지근하게 되고 기도하지 못하는 상태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불신의 자임을 비참하게 실감하는 것을 반복합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좌편이나 우편으로 치우치지 않고 오직 받은 율법을 준수하며 앞으로 나가는 여호수아 같이, 단순하고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런 믿음을 가지지 못하는 불신에 참담하고 그리스도를 떠나 무능하고 무력한 존재일 수밖에 없는 자신을 실감을 할수록, 그리스도가 구원의 반석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자녀로 부르심을 받아 값없이 용서와 인도하심을 받은 자로서 과연 합

---

37) 누가복음 9:1-6

38) [누가복음 9:37-43] 40 그래서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쫓아 달라고 청하였으나, 그들은 해내지를 못했습니다. 41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아! 믿음이 없고 비뚤어진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며 너희를 참아 주어야 하겠느냐? 네 아들을 이리로 데려오너라.”

당한 모습으로 사는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말씀이 있습니다. 풍족함과 편리함, 오락거리가 넘쳐나는 안정되고 발전한 사회에서 믿음에서 떠나 타락해 가는 자신에 대한 경고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3:15-20] 15 나는 네 행위를 안다.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면 좋겠다. 16 네가 이렇게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 나는 너를 내 입에서 뱉어 버리겠다. 17 너는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 하지만, 실상 너는 내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18 그러므로 나는 네게 권한다. 네가 부유하게 되려거든 불에 정련한 금을 내게서 사고, 네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서 드러내지 않으려거든 흰옷을 사서 입고, 네 눈이 밝아지려거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19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한다. 그러므로 너는 열심을 내어 노력하고 회개하여라. 20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풍족하고 부족한 것이 없는 상태에서 믿음이 뜨겁지도 차지도 않게 되어, 험벗은 것을 알지 못하고 눈이 먼 줄도 모르는, 입에서 뱉어 내버리려는 상태가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입에서 뱉어 내버릴 상태의 존재라고 해도, 사랑하시므로 책망과 징계를 하시며, 열심을 내어 노력하고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자녀로 부르심을 받아 기적을 맛보기도 하지만, 믿음이 없고 비뚤어진 세대라는 질책을 받는 상태에 있을 때도 있습니다. 믿음이 미지근한 불신의 상태에서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고 눈이 멀어 있어도, 예수님은 여전히 문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고,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들어와 함께 먹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 고데의 로마서개론- 바울 사도 소전(小傳)(2)

(회심과 그에 이은 사도직 준비 시기)

최정일

### Ⅲ. 사울의 회심

(1) 바리새적 열정 가운데서도, 사울은 평화를 누리지 못했다. 로마서 7장에서 그는 이 시기의, 자신의 내적 삶의 비밀을 드러낸다. 율법이 추구하는 의의 이상을 실현하려는 자신의 노력이 충실하면 할수록 그의 안에는 자신의 최선의 결심을 조롱하는 원수(정욕, 탐욕)가 있음을 사울은 발견했다. 즉 그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체험을 하고 나서, 그는 [롬 3:20]에서 이렇게 고백한다:

“율법에 의해서는 죄를 인식할 뿐입니다.”

(2) 의를 실현하려는 데에 있어, 자신이 무력하다는 고통스러운 느낌은 그의 삶을 전환시키는 위기의 부정적 준비라고 할 수 있다. 의에 주리고 목마른 그의 영혼은 자신의 행위로써 그것을 이루려는 시도가 헛된 것임을 알아차렸을 뿐이다.

(3) 다른 사건[이는 보다 더 긍정적인 방법으로 변화에 대비하기에 적합한데]이 이 시기에 일어났다. 스테반의 순교의 비활동적인 증언, 그 피의 현장을 사울은 조용히 깊이 생각할 수 있었다.

1) 하늘의 밝음에 의하여 빛이 비추어진 순교자의 눈썹

2) 영광에 든 인자(人子)에 대한 기도[그 안에, 그의 사랑의 비밀과 개선의 희망의 비밀이 있었다].[행 6:8-8:4]

(4)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를 죽이는 자들이, ‘자신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고 생각할 때가 올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다.

바로 이 생각으로 젊은 사울은 그리스도 신자들을 박해했다. 그러므로, 이 젊은 박해자가 박해하고 있는 그분, 곧 그리스도의 즉각적인 간섭이 이 젊은 박해자를 저지할 수 있었다.

(5) 19세기에 사울의 느낌, 확신 및 삶에 내려진 이 갑작스런 혁명'을, 순전히 자연적 방법으로 설명하려는 시도가 행해졌다. 일부 학자들은 그것을 전적으로 내적 성격의 혁명이고, 순전히 도덕적 기원의 내적 혁명이라고 설명한다. 홀스텐은 그의 저서인 「베드로와 바울의 복음」[1868년]에서 이 설명에 그의 주목할 만한 명민함을 보태었다. 그러나 홀스텐의 스승인 바우어는 당초에는 사울의 회심시에 나타나신 예수의 출현사건을 단지 영적 과정의 외적 반영이라고 보았으나, 결국에는 신비하고 측량할 수 없는 무엇인가가 사실상 남아 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즉 바우어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심리적 분석이든, 변증법적 분석이든, 어떤 분석으로도 하나님께서 사울 안에 하나님의 아드님을 계시하신 행위의 신비를 헤아리는 데 성공하지 못한다.」이 사실은 우리가 이 혁명을 결정짓는 도덕적 위기를 완만하고 완전히 준비된 것으로, 생각하면 할수록 더욱 더 그것에 대한 설명은 외적이고 초자연적인 동인(動因)을 요구한다는 점이다

(6) 우리는 이 경우, 예수께서 주신 비유즉 더 강한 자가 와서 강한 자를 정복하는 것을 생각하게 된다. 사울 자신은 이 때, 이 주권적인 개입을 깊이 느꼈다. 고전 9장에서 바울 사도는 자신의 사도직이 강제(압박)에 의해 주어진 것[9:16-18]과 열 두 사도의 사도직이 완전히 자유롭고 자발적으로 주어진 것[9:5-6]을 대비시킨다. 바울 사도는 강제에 의하여 사도로 되었다. 그에게 예수님은 “네가 원하느냐?”라고 묻지 않으셨다. 오히려 “만일 네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너에게 화가 있을지어다!”라고 하셨다. 바로 이 이유 때문에 바울 사도는 에클레시아의 재정적 보답도 포기하고, 자기 자신이 노동하면서 자비량으로[심지어 동료의 생활까지 책임지면서], 전

도활동을 한 것이다. [행 20:34]

(7) 이같이 바울 사도는 자신의 회심과 사도직이 철저히 수동적인 성격을 지닌다고, ‘자신의 양심’으로 증언하고 있다. 사도행전에서의 설명은 바울 사도의 이 양심의 선언과 일치한다. 사도행전의 세 가지 기사에서 볼 수 있는 영상은 이 신비로운 현상이 사울과 동행했던 사람들이 실제로 인지한 현상임을 증명한다. 사울과 동행했던 사람들은 바울 사도에게 말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알지 못했지만행 9:7], 그들은, 보통의 햇빛의 밝기를 뛰어넘는 빛에 휩싸였다. [행 22:9][행 26:13]. 사울과 동행했던 사람들은 사울에게 말해진 말을 분명히 듣지는 못했지만, 사람의 말소리(음성)를 들었다.[행 9:7]

(8) 종종 이 기사들의 세부 사항들이 모순된다고 주장 되어 왔다. 그러나 그런 주장은 채택되지 못했다. 왜냐면 의심의 여지 없이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 문체와 구성의 특질은 확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결국 사울 혼자 주님을 보았고 주님의 말씀을 알아들었지만, 사울과 동행하던 사람들은 무엇인가 비범한 것을 보고 들었다고 결론짓게 된다. 따라서 이 기사의 객관성은 충분히 증명된다.

(9) 바울 사도 자신은 확고하게 이 논점을 확신했다. 그래서 고전 9:1에서 자신의 사도직의 진정함을 증명하기 위하여, 주저 없이 자신이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는 사실을 그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고전 15:8]에서도, 바울 사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을 열거하면서 자신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고 말한다. 고전 15장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자신이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부활체)으로, 외적으로 나타나셨다는 사실임을 밝히려는 것이다. 즉 주님의, ‘몸의 부활’을 증언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사실로부터, 일반적인 부활의 진실성을 확립하려고 한다.

(10) 단순한 환상(공상)만으로는 그리스도의 몸의 부활’과 우리의 몸의 부활을 결코 근거지을 수 없다.

고후 12:1 이하에서의, 신비로운 영상과 계시 기사를 보면, 바울 사도가 다마스쿠스 도상에서의 부활하신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설명할 때의 그 단언적 선포와 얼마나 다르게 극히 조심스럽게 “나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한편 갈 1:1에서, 바울 사도는 똑같은 확신을 가지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다마스쿠스 도상에서 자신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을 사도로 부르셨다는 사실의 객관성을 선포한다.

(11) ‘르낭’은, 「바울 사도에게 일어난, 그토록 갑작스럽고, 완전한 변화를 설명하려면, 그의 도덕적 삶 안에 강력히 작용한 외적 요소를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것은 레바논의 갑작스런 폭풍우이거나, 갑자기 빛난 번갯불의 섬광이거나, 또는 심한 눈의 염증의 증가로 인한 과격환각으로 추측된다고 한다.

그러나 그렇게 표면적인 이유가 바울 사도의 그 후 전(全)생애를 완전히 그리고 영속적으로 뒤흔들어놓는 도덕적 변화를 결코 설명할 수는 없다.

바우어는 그의 논문 「사도 바울」에서, 우리는 계속 검토해 보아야 한다. 르낭 등의 이런 가정들은 성서 본문에도 그 근거가 없고, 성서 본문의 명백한 문언과도 어긋나기 때문이라고 했다.

로이쓰는 결국 우리 시대에도 바울 사도의 회심 문제는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 이것이 전통적 의미의 절대적 기적인지, 아니면 어떠한 심리적 현상인지는 더 두고 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카임도 바울 사도를 그렇게 완전히 바꾸어놓은 혁명의 이유를,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의 객관성에서 찾지 않을 수 없었지만, 카임은 부활하신 주님이 영적 역사의 방법으로, 바울 사도의 영혼에 영적 역사를 행하시는 방법으로, 나타나셨다고 본다. 이것은 주님의 몸의 부활의 기적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미리 내려진 결정의 필연적 결과이다.]

(12)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바우어의 말을 적용할 것이다. 즉 르낭, 카임

등과 같은 가설은 성서 본문에 그 근거가 없고, 오히려 성서 본문의 ‘명백한 의지’와 어긋난다고! 카임과 같은 이른바 가설은 사도행전의 세 가지 기사들을 꾸며낸 이야기로 변형시켜 버리는 것이고, 또한 사울과 동행한 사람들은 결코 아무것도 본 것이 없다고 결론짓게 만들뿐이다. 만일 바울 사도가 개인적(인격적)으로 주님의 몸의 임재하심’을 경험하지 않았더라면, 바울 사도는 결코 역설(특히 유대교 신학자들에게는, 극도로 불쾌한 역설)을 감히 만들지는 않았을 것이다.[골 2:9]

(13) 사울의 회심과 함께 인류 역사에서 최고의 때가 왔다. 르낭이 적절히 지적했듯이, 만일 예수의 탄생과 함께 세계역사에서 으뜸가는 사건이 성취되는 시간이 막 왔고, 인류 중 최고의 사람들이 이교신앙(우상숭배)에서 신적 통일성(divine unity)에 근거한 종교로 옮겨가는 혁명의 시간이 막 왔다면, 바울 사도의 회심은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자신의 것으로 만드셔서 이 유례없는 혁명을 가져오는 자신의 도구가 되게 하신 수단이였다.

(14) 이제 한 가족을 가진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은 계약이 온 세계에 확장되고,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대로 온 세상의 모든 가족들(천하 만민)을 하나님께서 껴안으실 때가 왔다. 그 종족(이스라엘 민족)의 최초의 시기(아브라함, 이삭, 야곱)를 주재한 ‘편주의(아브라함의 신앙)가 일정 기간 신정정치의 특수주의(유대교, 특히 바리새주의)에 양보했다가 이제 더 세련된 모습과 이방세계를 정복시킬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막 다시 나타났다. 그런데 이 특별한 일을 하는 데는 특별한 행위자(대리인)가 요구되었다. 예수께서 오셔서 그 길을 닦아 놓으셨으나, 아직 완성하실 수 없었다. 팔레스타인의 열두 사도들은 그런 임무에 적합하지 않았다. 바울 사도야말로 미리 특별히 고안되고, 준비된 사람이였다.

(15) 우리가 바울 사도가 수행한 일(르낭은 이것을 ‘세계역사에서 으뜸가는 사건’으로 불렀다)을 우연한 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바울 사도

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에 부르심을 받고, 명부에 올려진 그 하나님의 역사(행위)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정하셔서 자신이 직접 간섭하시어 그렇게 만드신 그 역사(행위)를 생각해야 한다.

강한 손과 뻗친 팔을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때가 왔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택하신 도구를 붙잡으셨다. 이 생각 전체는 로마서의 서언의 내용을 정확하게 구성한다. [롬 1:1-5]

(16) 이 급격한 혼란에 이은 3일간, 사울의 영혼에 지나간 것을 그 자신이 롬 6장 초두[롬 6:2-14]에서 말하고 있다. 롬 6:1-14에서 우리는 바울 사도의 다마스쿠스 체험의 직접적 메아리를 들을 수 있는데, 그것은 두 마디 단어로 요약된다. 즉 사망과 부활이다. 이때 사망은 자기-우상 숭배적인 사울의 사망이고, 자기 자신(인간 자신)의 의(義)에 대한 사망이고, 율법(주의)에 대한 사망이다. 사울은 자신의 율법성취에 대한 열렬한 열의에 의하여 어디로 이끌렸던가? 하나님과 전쟁을 하고, 자기 의에 그렇게 은밀하게 집착하고, 결국 그토록 기괴한 귀결을 초래했을 뿐이다. 이것을 바울 사도는 이제 명확하게 알아차린 것이다. 사울은 그 때까지 오직 자기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했던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영광을 돌렸던 것이다.

(17) 그때까지 실은 사울의 찬미의 대상은 자신의 에고(ego)였다. 사울은 도덕적 완전함에 도달하려고 했던 것이다. 그리고 끝내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원했던 것이다. 「보라! 내가 이루어놓은, 이 위대한 바빌론을!」 사울이 그동안 추구했던 길은 결국 맹목적이고, 잔혹한 광신적 행위로 그를 이끌었다. 바로 이것을 사울은 이제, 명확하게 알아차린 것이다.

(18) 지금까지 사울이 단지 이방인에게만 적용시켰던 다음의 <성서>의 선언의 진실함은 이제 사울 자신의 경우에 쉽게 알아차릴 수 있었다.[롬 3:10]

인류 중 최선의 사람조차도 예외 없는 「온 인류의 부패와 정죄」는 이제

사울 자신의 개인적 체험에서도 명백하게 된 것이다. 이 경험을 바울 사도는 뒤에 [갈 2:19-20]에서 이렇게 서술하고 있다. 나는 이미 율법의 손에 죽어서 율법의 지배에서 벗어났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을 위하여 살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19) 그러나 그의 사망과 동시에 사울 안에 부활이 쓰여졌다.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울이, 사울의 의식영역 안에, 정죄받은 사울대신에 나타났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써 사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바울 사도는 힘찬 표현으로써, 자신 안에 일어난 ‘급격한 변화를 나타낸다.[고후 5:17]

사울은 율법을 어길 때마다 율법에 의하여 요구되는 레위기의 희생제물에 익숙해져 있었는데, 이제 자신 안의 엄중한 죄를 느끼자 그 결과인 정죄와 사망을 느꼈고, 이제 동물의 희생제물 이상의 효험있는 속죄의 필요성을 느꼈다. 이제 다마스쿠스 도상에서 영광 속에 그리스도로서 나타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죽음은 사울에게 전혀 새로운 의미로서 다가왔다.

지금까지는 예수의 죽음을, 사울은 거짓 그리스도가 마땅히 받아야 할 처벌이라고 보아왔으나, 이제는 예수의 십자가상의 죽음은, 사울에게 하나님 자신이 인류의 죄와 사울 자신의 죄를 씻어없애기 위해서 제공하신, 속죄를 위한 희생제물로 인식되었다. 이사야 예언자가 묘사한 아훤의 고난받는 종의 기사가, 그 유일한 사람 위에, 하나님은 온 인류의 죄를 놓으셨다! 이제 누구에게 적용될지 사울은 알아차렸다. 특히 아람어 번역 구약성서인 타르굼(기원 5세기에 바빌로니아에서 나옴)은 이사야서의 고난의 종의 노래 기사를 메시아에게 적용시키고 있다.

(20) 예수의 부활은 부활하신 예수께서 사울에게 몸으로 나타나셨으므로 사울에게는 명백한 사실이었고, 그때부터 사울에게는 예수의 부활은 인류를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포로, 이 죄악세상(인

류)에, 하나님에 의하여 제공되는 완전한 대사면의 기념비로 확신되었다. 「내 의로운 종이 많은 사람을 의롭게 만들 것이다」라고, 이사야 예언자는 야훼의 종의 부활을 야훼의 종의 자발적인 자기희생의 귀결로 묘사한 뒤에 이렇게 선포했다.[사 53:4-12]

(21) 사울은 이제 이 약속의 성취를 놀라워하면서, 그리고 찬미하면서, 숙고(묵상)한다. 이, 새로운 의(義)는 사울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었다. 이 새로운 의에 덧붙여져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사울이 그 동안 그렇게 처절한 노력으로 추구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즉 ‘하나님과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단지 이 새로운 의를 받고, 그것에 의지하는(믿는) 것으로 충분했다.

(22) 사울은 기뻐하면서 이 단순한 새로운 의를 받고, 그것을 믿는(그것에 의지하는) 삶으로 들어갔다. 사울은 메시아의 죽음 안에서 함께 죽고, 또한 정죄 받고, 부활하신 메시아 안에서 다시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고, 다시 살았다. 사울은 그의 마지막 숨을 거두기까지 다마스쿠스에서의 3일 동안 받은 이 계시로 그렇게 살았다.

(23) 이 영혼의 상태에서, 그리고 내적 비침의 결과로서 우리는 사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세례(아나니아가 사울에게 베푼 세례)를 어떻게 보았는지 이해할 수 있다. 로마서 6장에서, 사울이 이 세례의식을 예수의 죽음, 장사지냄과 부활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죽음과 장사지냄과 부활의 상징으로 제시할 때, 사울은 그렇게 표현하면서, 모든 그리스도 신자들에게 자신의 다마스쿠스에서의 세례 체험을 적용했던 것이다. [롬 6:4-5] 세례의식은 ‘칭의의 은총’에 대한 확실한 봉인이었고, 이 ‘칭의의 은총’에 성령의 창조적 역사에 의한 ‘신생의 은총’이 더해졌는데, 즉 성령께서는 사울의 마음을 변화시키시어 하나님과 화해되게 하였고, 그의 마음 안에 새 생명을 만드셨다.

(24) 사울의 모든 사랑의 힘은 자신의 죄의 대속자가 되신 그리스도에게

즉, 사울의 의(義)의 창조자가 되신 그리스도에게, 그리고 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선물을 사울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께로 향했다.

(25) 이같이 이제 사울 안에는 진정한 거룩함의 토대가 놓여졌다. 사울에게 그때까지 불가능했던 것, 즉 ‘자신을 비우는 것’과 ‘하나님을 위한 삶’이 드디어, 그의 겸손하고, 동시에 기쁨에 찬 마음 안에 만들어졌다. 사울이 그때까지 율법의 멍에 아래서 완성하기 위하여 헛되이 찾았던 자유로운(자발적인) 순종은 그의 감사하는 마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성령)을 통하여, ‘룩한 현실(실재)이 되었다. 그때부터 사울은 노예(종)의 신분과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사이의 그 무한한 거리를 깨닫게 되었다.

(26) 이 체험에서 율법의 진정한 성격에 대한 새 빛이 나타나지 않을 수 없었다. 사울은 그동안 모세율법을, 세상(인류)의 구원을 위해서는 필수불가결한 행위재작인(作因), 동인(動因), 능인(能因), 효과적 원인이라고 보는데 익숙했었다. 그때까지 사울이 보기에는 율법은 온 인류의 삶의 표준이었다. 그러나 이제 이 체험이 있는 후에는 인간을 하나님 앞에 의롭게 하는 능력도 인간을 성화(聖化)시키는 능력[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능력]도 모세율법은 전혀 갖추지 못했음이 사울에게 드러났다.

(27) 사울은 여전히 모세율법의 교육적 기능을 인정했지만, 그것은 단지 일시적인 것일 뿐이었다. 왜냐면 메시아가 오셔서 사울이 율법에서 기대했던 모든 것을 이루신 이제 모세율법의 목적은 이미 달성되었기 때문이다. [골 2:10]에는 너희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해졌다고 있다. 또 [골 2:17]에는 먹고 마시는 일이나 명절이나 초승달 축제나 안식일 문제는 올 것들의 그림자일 뿐이요, 그 실체는 그리스도에게 있다고 있다. 즉 이제부터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의 단지 그림자일 뿐인 것들[외적 관습의 준수와 거짓 교사의 외관상의 거룩함은 무가치하고, 육적인 것일 뿐이다.

(28) 이같이 사울에게 하나님의 선물들의 충만함이 율법의 도움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위격)과 역사(행위) 안에서 주어졌는데, 그러면 도대

체, 이 예수는 누구인가? 그는 단순한 사람일 뿐인가?

사울은 예수가 신성 모독죄로 산헤드린(고대 유대의 최고 평의회 겸 대법원)에 의하여 사형으로 기소되었는데, 그 이유는 예수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임을 기억하고 있었다. 예수의 이 주장은 그때까지는 사울에게 불경함과 사기·협잡의 극치로 보였었다. 이제 그 똑같은 예수의 주장'은 사울이 다마스쿠스로 가는 도상에서 만난, 부활하신 예수의 주권(主權)적 위엄에 비추어 볼 때, 하나님의 봉인으로 확인된 것이고, 사울을 부활하신 예수의 거룩한 인격(위격)에 굴복하게 만든 것이다. 이제 사울은 더 이상 메시아 안에서 단지 다윗의 후손으로만 보지 않고, 또한 하나님의 아드님으로 보게 된 것이다.

(29) 사울의 그리스도에 관한 이 관념의 변화와 똑같이 중요한, 결정적인 변화인, 메시아의 역사(행위, 업적)에 대한 관념의 변화는 연결되어 있다. 즉 전에 사울이 메시아를 단지 다윗의 후손으로만 보았던 동안에는 사울은 메시아의 역사(업적)를 단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영광의 기림으로 보았고, 율법의 가르침을 전 세계에 확장·적용하는 것으로 생각했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인 인격 안에서 신(神적)인 존재, 즉 하나님의 아드님의 나타나심을 계시하신 때부터는 사울의 메시아의 역사(업적)관은 메시아의 인격(위격)관과 함께 똑같이 커졌다. 다시 말하면, 메시아가 단지 다윗의 후손만이라면, 메시아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속할 것이나,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드님이시라면 메시아는 인류의 구세주이시며 인류(천하만민)의 주님이라는 사명을 제외한다면 이 낮은 곳에 오실 수 없었을 것이다.

(30) 이렇게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이런 메시아 앞에서 그 어떤 인간적 구별들도 지워 없어져야 했다. 그 결과가 바울 사도의 [갈 1:15-16]에서, 이렇게 충격적인 말로 표현되고 있다. 나를 모태로부터 따로 세우시고 은혜로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드님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그

아드님을 나에게 기꺼이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드님과 이방인- 이 두 가지 관념은 필연적으로 상호 관계된다. 즉 하나의 계시는 필연적으로 다른 하나의 계시와 함께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리스도의 신성(神性)과 그리스도의 나라의 보편성은 로마서에 대한 열쇠에 해당한다.

(31) 인간을 구원함에 있어서의 율법의 무력함, 원의 값없는 수여, 메시아의 구원이 도래함으로써의 모세율법의 율법주의의 종언, 메시아의 신성(神性), 메시아의 역사(업적)의 보편적 유효함, 이 모든 관념들은 바울 사도의 '나의 복음'[내가 전하는 대로의 복음]의 새로운 종교적 관념인데 로마서에서 두 번 나타난다.[2:16; 16:25]

(32) 바울 사도의 '나의 복음'의 내용은 직접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후의 3일간, 성령의 빛 아래에서의 바울 사도의 마음 안에 나타난 내적 진화과정과 그의 회심을 둘러싸고 나타난다. 열두 사도에게는, 3년 동안의 예수님과의 동행의 결과가 오순절(성령강림절)의 빛으로 나타났듯이, 바울 사도에게는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갑작스런 만남의 결과가 그 뒤에 이은 3일간의 성령의 비추심으로 나타난 것이다.

(33) 부활하신 예수의 외적 출현이 없었더라면, 바울 사도 안에서 고뇌 속에 있던 그 도덕적 과정은 끝내 헛된 수고로 끝나고 말았을 것이다.

반대로 만일 사울에게 ① 부활하신 예수와의 만남 이전에 있었던 도덕적, 종교적 고뇌와 ②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3일간의 영적 진화가 없었더라면,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도 아브라함이 [눅 16:31]에서 말했듯이 역시 무의미하게 끝났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도 듣지 않는다면 어떤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해도 믿지 않을 것이다.'하고 대답했다.

즉, 만일 '이전의 도덕적, 신앙적 고뇌'가 없었더라면, 심지어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조차도, 사울에게도, 그리고 온 인류에게도, 그 결과는 헛

된 것이 되고 말았을 것이다.

#### IV. 바울의 사도직(使徒職)

##### (1) 개론

1)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 신자가 된 동시에 사도가 되었다. 이 두 사실의 예외적 동시 발생은 바울 사도의 회심의 모습에서 나왔다(고전 9:16-17).

바울 사도는 열두 제자처럼 예수의 사도가 된 것이 아니다. 열두 제자는 믿음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예수께 의지했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자유롭게 응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갑자기 공개적인 예수의 박해자 신분에서 예수님께 뽑혀진 것일 뿐이다.

2)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 신자로 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도로 지명하신 그 선택의 결과이다. 바울 사도의 사도직은 28년 내지 30년간 계속되었다. 바울 사도는 대략 30세에 회심했다. 따라서 이 급격한 회심 사건은 바울 사도의 생애를 거의 같은 연수대략 28년 내지 30년의 두 시기로 구분시킨다.

3) 바울 사도의 사도직 경력은 크게 세 시기로 나뉜다. :

① 제1기(준비 시기)인데 대략 7년간이다.

② 제2기(적극적 사도직 시기)인데, '3차에 걸친 전도 여행'이 주된 것이고, 대략 14년간이다.

③ 제3기(투옥 시기)인데, 이 시기에는 (가) 케사레아에서의 2년간의 투옥과, (나) 로마에서의 2년간의 투옥과 그리고 (다) 케사레아에서 로마까지의, 6개월간의 항해가 포함된다. 그리고 이 4-5년에 마지막 자유의 몸으로서의 5-7년간의 전도 활동이 추가된다. 이 제3기의 끝은 바울 사도가 로마에서 당한 순교이다.

## (2) 준비 시기(제1기)의 구체적 내용

1) 다마스쿠스 도상에서의 회심 이후, 바울 사도는 곧바로 그의 사도직을 수행한 것이 아니고, 서서히 실행하게 된다. 바울 사도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은 특별히 이방인의 회심을 위해서였다. [행 9:15-주께서는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다. “다소 사람 사울은 내가 뽑은 자로서 내 이름을 이방인들과 제왕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널리 전파할 사람이다.”] 여기서 마지막 항목(이스라엘 백성에게)은 일부러 끝에 놓여졌다. 즉 유대인은 물론 바울 사도의 전도에서 제외되지는 않았으나, 그의 직무의 ‘첫번째 대상’은 아니었다.

2) 그런데 실제로 바울 사도는 그의 전도 활동에서 먼저 유대인의 복음을 화를 실행하고, 이어서 이방인의 복음을 추진했다. 모든 이방인 도시에서, 바울 사도는 먼저 이방인으로서 유대교에 개종한 자들과 만나서 전도하고, 그것을 징검다리로서 하여 순수한 이방인들(다른 종교를 믿고 있던 사람들에게)에게 전도했다.

3) 최초로 복음전파는 역사적 토대에서 보면, 베드로에 의하여 예루살렘과 팔레스타인에 이스라엘의 에클레시아에서 시작되었고, 그 구체적 내용은 사도행전 1장-12장에 잘 나와있다.

4) 바우어는 사도행전의 이런 먼저 유대인에게 전도하고, 그 후에 이방인에게 전도하는 순서에 관한 기사를 신빙성이 없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은 유대인의 호의를 얻기 위하여 바울 사도가 당한 심한 고통을 과장해서 서술하기 때문이라고 보지만, 누가 쓴 사도행전의 기사를 바울 사도 자신이 로마서[1:16; 2:9-10]에서, 확인하고 있다. 이 기사들에서 바울 사도는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이야기할 때 즉 ①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과 ② 최후의 심판, “먼저는 유대인들이 누리고”, 또는 “먼저는 유대인들이 당하고”라고 말한다. 바울 사도는 유대인들의 특별한 부르심과 유대인들이 누린, 신정(神政)적 준비의 덕택으로, 유대인들에게 속하는 우선권을 인정한

다. 바울 사도는 그의 전도 활동의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끊임없이 그 말과 행동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특권에 경의를 표한다. 그러므로, [행 10:20]과 관련된 사실에 있어서 볼 때, 바울 사도가 즉시, 다마스쿠스의 유대인 회당들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은 전혀 특별한 일이 아니다.

5) 거기서부터 바울 사도는 곧 그의 전도를 그 주위의, 아라비아 지역까지 확장했다. 갈 1:15-18에 따르면, 바울 사도는 그때 3년을 오롯이 그, 멀리 떨어진 지역에 바쳤다. [행 9:18-23]에서는, 이 기간을 애매한 표현으로, 여러 날들이라고 요약하고 있다. 바울 사도에게 이 3년의 기간은 분명히 ① 정신 집중의 시기였고, ② 주님과 개인적 친교를 나눈 시기였다. 이 3년의 기간은 열두 사도가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3년간 모시며 동행한 기간과 비교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이 3년간의 체재 기간을 조금도 외적 무활동의 기간으로는 보지 않는다. 왜냐면 [갈 1:16·23-24]의 바울 사도의 말과 그것에 이은 성서 구절을 볼 때, 바울 사도는 이 3년을 오로지 복음 전파에 전념했음을 의심할 수 없기 때문이다.

6) 갈라디아서 1장 전체는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파함에 있어, 예루살렘에 있는 열두 사도와 상의하여 그들의 지시를 받는 것을 전혀 기다리지 않았다는 생각에 근거하고 있다. 반대로, 바울 사도가 처음으로 베드로와 만났을 때는 이미 자신이 복음을 전파하고 난 후였다.

7) 아라비아에서의 복음 전파 후, 바울 사도는 다마스쿠스로 돌아왔는데, 다마스쿠스에서 바울 사도의 전도 활동은 유대인들의 분노를 최고점까지 격양시키게 만들었다. 그 당시 다마스쿠스는 아라비아 왕(王)인 아레타스의 치하에 있었다. 우리는, ‘로마의 지배권’으로부터, 당분간, 다마스쿠스가 제외된 상황을 자세히는 모르며, 또한, 이런 ‘이상한 상태’가 몇 년간 지속되었는지도 모른다. 이것은, 아직까지도 완전히는 해결되지 않은, 흥미로운, 고고학적 문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레타스 또는 하렛 왕(王)이 그 당시 다마스쿠스를 일시적으로 지배했던 사실에는 의심을 품을 수 없다.

[예컨대, 로마 황제였던 칼리굴라나 클라우디우스의 동전이 아니라, 그리스 침취자였던 아레타스 왕(王)의 동전이 발굴되어 나온다]

8) ‘복음 전파의, 이 첫 시기’가 끝날 무렵, 바울 사도는, 베드로와 개인적으로 알 필요를 느꼈다. 이를 위하여 바울 사도는 예루살렘에 갔다. 그는 베드로와 10일간 함께 지냈다. 물론, 바울 사도가, ‘베드로 학파’에서 ‘복음을 배울’ 필요는 전혀 없었다. 만일 그랬다면, 바울 사도가, ‘이 가르침’을 얻는데, ‘3년’을, 지체했을 리가 없다. 그러나, 비록 바울 사도가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을 직접 받았을지라도[갈 1:11-12], 결국, 예수의 지상(地上)생활의 핵심 증인으로부터 그 증언을 듣는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했다. 예수의 사역사실에 대한 이토록 믿을 만하고, 상세한 설명(= 이야기, 보고)을 바울 사도는 달리 어떻게 얻을 수 있었겠는가? 바울 사도는 이것들을 나중에 그의 서간들과 이야기들에서 이야기하고 인용하고 있다.[고전 15장; 고전 7:10; 행 20:35]

9) 2주 동안 그때 바울 사도는 사도들과 의논했다. [행 9:27-28] 거기서 쓰인 ‘사도들’이라는 불명확한 표현은 갈라디아서의 보다 더 자세한 설명 [갈 1:18-19]에 따르면, 베드로와 야고보를 의미한다. 바울 사도의 의도는 상당기간 예루살렘에 남아 있으려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그가 무릅쓴 위험에도 불구하고, 전날의 에클레시아 박해자의 증언은 다른 어떤 곳보다 예루살렘에서 그 큰 효과를 발생시킬 것으로, 그는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의 구원을 위하여 자신이 그토록 주의 깊게 준비한 이 도구(사울)가, 유대인들의 분노로 용감한 스테판과 같은 운명을 겪고, 난폭하게 목숨을 잃게 하려고 하지 않으셨다. 성전에서 바울 사도가 본 주(主)의 이상(환시)은 바울 사도에게 즉시 예루살렘을 떠나야 한다고 경고하셨다. [행 22:2-16]

10) 사도들은 바울 사도를 가이사리아의 해안가로 데려갔고, 거기로부터 바울 사도는 다소로 갔다. 그 경로는,[행 9:30]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음

나, [갈 1:21]에서 볼 때 육로로 갔다고 보여진다.[즉 먼저 가이사리아에서 시리아로 갔고, 거기서 다시 바울 사도의 고향인 다소로 갔다] 그리고 다소의 가족들 안에 있으면서 주님의 새로운 지시를 기다렸다.

11) 바울 사도는 이때 헛되이 기다린 것이 아니었다. 스테판의 순교 후에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인들(헬레니스트들)로서, 예루살렘에 있던 그리스도 신자들이 팔레스타인에서 사납게 휘몰아친 박해를 피하여 피난하여, 시리아의 수도인 안디옥으로 이주한 것이다. 헬레니스트들은 전도의 열정 때문에 지금까지 복음의 전파자들이 준수했던 한계를 넘어서서, 이방인 중 그리스인(人)들(그리스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전도하기 시작했다.

12) 하나님의 은총은 이 결정적 발걸음과 함께 하셨다!! 이 그리스도 신자들의 숫자도 많고, 또한 활기가 넘친 에클레시아는 그리스인(또는 그리스말을 사용하는 사람들) 중 그리스도교예의 개종자들이 다수였고, 이들은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신자인 사람들과 동료가 되었는데, 이 에클레시아가 이제 시리아의 수도에서 일어난 것이다. 이 중요한 에클레시아의 창설에 대한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의 설명에 따르면, 자연의 풍경화에서만 볼 수 있는 매력, 매혹, 신선함이 있었다.

13) 사도들과 예루살렘 에클레시아는 이 뜻밖의 일을 접하고, 바나바를 그곳에 보내어 이 전례가 없는 운동을 보다 더 자세히 조사하고, 필요한 지침을 주게 했다. 이때 바나바는 자신이 일찍이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에게 바울 사도의 회심 경위를 설명해 주었음을 기억하고, 자신의 임무를 도와 주기에 적합하다고 확신하고, 바울 사도를 안디옥으로 데리고 왔다. 이때부터 안디옥 에클레시아와 바울 사도 사이에는 밀접한 결합이 형성되었고, 그 장대한 열매가 세계의 복음화였다. [행 11:19-12:25]

14) 안디옥 에클레시아에서 1년간 함께 전도 활동을 한 뒤에, 바나바와 사울은 예루살렘의 가난한 그리스도 신자들에게 도움을 전달하기 위하여 파송되었다. 이 여행은 헤롯 아그리빠의 사망 시기와 일치했는데[사도행전

12장], 헤롯 아그리빠는 이스라엘의 민족(국가)적 주권의 마지막 대표자였다. 역사가 요세푸스의 헤롯 아그리빠의 죽음에 대한 자세한 서술이 있는데 요세푸스는 헤롯 아그리빠가 서기 44년에 사망했다고 쓰고 있다.

<그 무렵의 팔레스타인의 통치권자>

- (1) 헤롯 대왕: BC 40-BC 4년 통치
  - (2) 헤롯 안티파스: BC 4-AD 39년 통치(갈릴리와 베레아 지역)
  - (3) 헤롯 아그리빠 1세: AD 37-44년 통치(헤롯 대왕의 전 통치지역을 모두 통치)
  - (4) 펠릭스 유다총독[Prokurator]: AD 52-56/60년
  - (5) 페스투스 유다총독: AD 56/60-62년
- 헤롯 아그리빠 2세: AD 53년- ‘필립’과 ‘아빌레네’의 영토통치

15) 서기 44년은 클라우디우스 제4대 로마황제의 재위시기[AD 41-54년]이다. 클라우디우스황제는 기원 49년에 로마에서의 모든 유대인의 추방칙령을 내렸다(행 18:2-3). [참고:제5대 로마 황제-네로] 행 11:28에 따르면, 이때 즉 클라우디우스 로마 황제 때, 대기근이 발생했고, 바나바와 사울의 예루살렘으로의 여행(모금된 헌금의 전달을 위한)과 관련되고 있다. 따라서 여기서 우리는 바울 사도의 생애 중 가장 확실한 날짜를 얻게 된다. 한편 갈라디아서 1장에서는 ① 바울 사도의 회심 후의 3년간의 다마스쿠스 전도 활동, ② 예루살렘에 베드로를 만나러 가서 지낸 15일간의 체재, ③ 그 체재 후의, 시리아를 거쳐 다소에 가서 머문 사실만 기록되어 있고, 이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기원 44년)의 대기근시의 헌금 전달을 위한 예루살렘 예로의 여행에 대한 언급은 없다. 이에 따라서 일부 학자들은 이 헌금 전달을 위한 예루살렘방문은 바나바만 혼자 수행했고, 바울 사도는 안디옥에 머물러 있었다고 추측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추측은 행 11:30의 기사와

행 12:25의 기사에 모순된다.

16) 따라서 갈라디아서 1장에서, 바울 사도가 이 헌금 전달을 위한 예루살렘 여행을 말하지 않은 이유는 문맥상 갈라디아서 1장이 이 초창기의 바울 사도의 모든 예루살렘 여행을 열거하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즉 갈라디아서 1장의 주된 목적은 이 편지의 독자들에게 바울 사도가 처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을 만난 것은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한 후, 한참 뒤에 일어난 일임을 분명히 하려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바울 사도의 이 목적은 그의 회심이 있은 후, 그 결과로서 일어난 그가 처음으로 예루살렘에 머문 날짜를 밝힘으로써 충분히 달성되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 2장에서, 그의 회심 후에 있는 제1차 예루살렘 여행 뒤에 있는 그 후의 여행을 이야기하고 있더라도 그것이 곧 바울 사도 자신의 두 번째 여행임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17)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2장에서 이 예루살렘에서의 사도회의[*die Apostelberatung in Jerusalem*]를 위한 예루살렘으로의 여행[이것은 실제로는 바울 사도의 제3차 예루살렘 여행이다]을 말하는데, 이것은 단지 갈라디아서의 주제를 이루는 문제에 있어서, 이 제3차 예루살렘 여행이 아주 특별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기 때문이다.

18) 갈라디아서의 주제는 3가지로 요약된다.

① 바울 사도가 자신의 복음을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라는 증거제시와

② 이신칭의(以信稱義)와 모세율법의 지배로부터의 그리스도신자의 자유(自由) 그리고

③ 그리스도 안에서의 율법의 지배로부터의 자유는 새로운 영적 도덕적 삶의 토대이다라는 것이다.

# Crying in the chapel

주제 : 하나님의 영광

최 제 현

Crying in the chapel [예배당에서 울다]

Elvis Presley

You saw me crying in the chapel  
The tears I shed were tears of  
joy

I know the meaning of contentment  
Now I am happy with the Lord  
Just a plain and simple chapel  
Where humble people go to pray  
I pray the Lord that I'll grow  
stronger  
As I live from day to day

I've searched and I've searched  
But I couldn't find  
No way to gain peace of mind  
Now I'm happy in the chapel  
Where people are of one accord  
Yes, we gather in the chapel  
Just sing and praise the Lord

You'll search and you'll search  
But you'll never find  
No way to gain peace of mind

당신은 내가 예배당에서 울고 있는 것  
을 보았죠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나는 충만함의 뜻을 알아요.  
나는 지금 하나님 안에서 행복합니다.  
그냥 꾸밈없고 소박한 예배당  
가난한 이들이 기도하러 오는 예배당  
나는 (믿음)이더 굳건해지기를 하나님  
께 기도드렸습니다.  
매일매일 사는 날 동안.

찾고 또 찾았지만  
발견할 수 없었어요  
마음의 평화를 얻을 길은 없었습니다.  
난 지금 예배당 안에서 행복합니다.  
거기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곳.  
맞아요, 우리는 예배당 안에 있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려고요.

당신은 찾고 또 찾겠지만  
당신은 절대 발견할 수 없을 겁니다.  
세상에선 마음의 평화를 얻지 못해요

<p>Take your troubles to the chapel          Get down on your knees and pray          Then your burdens will be lighter          And you'll surely find the way          (And you'll surely find the way)</p>	<p>당신의 문제들을 예배당에 가져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당신의 짐이 가벼워질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답을 찾게 될 겁니다.          (당신은 꼭 답을 찾을 수 있어요.)</p>
<p>1953년 Darrel Glenn은 십대의 나이에 아버지 Artie Glenn이 자신을 위해 만들어 준 노래를 발표하여 지역사회 중심으로 퍼져 나가 전국적으로 알려진 노래가 되었습니다. 이 노래는 Cash box 1위, 빌보드 팝 싱글차트 6위를 차지하였고, 10년 뒤 Elvis Presley가 불러서 이지 리스닝 7주연속 1위, 빌보드 핫 100에서 3위, 영국에서 2주 연속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빌보드 팝보다는 빌보드 핫100이 더 알려져있어서, 우리는 Elvis의 노래로 기억하고 있지요. 여기 언급되는 예배당이 웬지 우리 모임과 어딘지 닮아 있는 것 같아서 오늘 의 주제로 선곡하게 되었습니다.</p>	

이 노래가 Gospel pop인 것은 말이 필요치 않습니다. 어느 찬송가보다도 진솔하여 감동적이니까요. 다만 일부 언론의 추측성 보도로 인해 Elvis Presley가 마약 중독사한 것으로 오해하고 계신 분들은 Elvis가 이런 노래 부른 것이 위선이거나 정서적 충동 때문이라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햄버거, 콜라를 좋아했던 Elvis는 1977년 42세의 나이로 죽을 당시의 체중은 150kg가 넘었고 고혈압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마약은 의사의 처방한도 내에서 각성제나 진정제 정도를 복용했으며, 마약을 별도로 구매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또 경찰의 부검 결과에서도 마약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인은 심장마비로 인한 자연사입니다. 다만 죽기 전날 Elvis가 알려지 반응이 있는 약을 치과의사가 처방한 것이 원인이 되었을 수 있어 치과 의사는 징계를 받았답니다.

Elvis는 특권을 거부하고 군복무를 마쳤으며, 평소 가난한 사람들을 이해하고 기부도 많이 하고, 겸손하여 세상에 알려진 것보다 훨씬 건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가수 오디션에서 수차례 떨어지며 낮에는 트럭 기사로, 밤에는 밤무대 가수로 투잡을 뛰며 열심히 살던 Elvis는 흑인들만 제대로 느낌을 낼 수 있는 영역이라 백인들이 비천한 장르로 취급하면서도 좋아했던 록큰롤(Rock and roll)로 데뷔하려 했지만, 음반사들이 로큰롤이라는 이유로 취입을 주저했었습니다.

오디션에 매번 실패하던 Elvis는 아들이 가수가 되는 것을 보고 싶어하는 어머니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돈 몇 푼을 들여 자작 음반을 냈는데 이 곡이 Heartbreak Hotel이었습니다.

이 곡이 폭발적인 인기를 얻어 빌보드 팝에 10주 연속 1위 하여, 1972년 그래미 어워드에서 평생 공로상을 수상했고, 사후에는 1986년 로큰롤 명예의 전당, 1998년 컨트리음악 명예의 전당, 2001년 가스펠음악 명예의 전당, 2007년 로커빌리 명예의 전당에 헌액 되었으며 2006년 그가 살았던 그레이스랜드는 미국 국가유적(National Historic Landmark)로 등록되었습니다.

이 중 가스펠 음악 명예의 전당에 오른 이유를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지요. 그는 정규 찬송가를 많이 불렀는데 하나같이 영혼을 빨아들이는 듯한 감성이 녹아 있습니다. 시간을 내서라도 Elvis의 찬송가를 꼭 들어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영어 가사라서 의미는 잘 몰라도, 곡만으로도 가슴에 와닿는 울림을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의 주제인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람들이 가장 숙연한 표정으로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무슨 말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짜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들여다보았습니다.

구약성서에 보면 여기저기 나와 있고, 특히 ‘하나님의 크신 이름’을 대신

해서도 쓰이는 것 같습니다.

“가나안 사람과 이 땅 모든 거민이 이를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나이까 [여호수아 4-9]”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냐고 하나님께 독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이름이란 곧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표현일 텐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할 일은 없고, 오로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려는 하나님의 영광과는 의미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바울 선생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10:31) 하셨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영광’은 의도가 명확하고, 우리가 가야 할 방향도 분명히 제시하고 있습니다만, 그저 목자를 따라 풀을 뜯고 목자를 따라 잠자리에 들뿐인 한 마리 양이 어떻게 감히 ‘목자의 영광을 위하여’응 운운할 수 있을까요? 목자의 영광은 양이 챙겨주는 것인가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분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의미를 해석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분명히 멋있는 말씀이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왜 내 마음에는 확실하게 닿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말이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말일까? 그런데 저만 헛갈리는 것은 아닐 겁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고, 또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가르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겠기에 조금 뒤져보았습니다.

교회용어사전(생명의 말씀사) : 영광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에게 속한 것으로(시 19:1)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실 분이다(사 42:8). 특히 하나

님은 자신의 이름(신 28:58; 느 9:5)과 위엄(욥 37:22; 시 93:1; 사 2:10), 권능(출 15:1; 롬 6:4), 역사(시 19:1; 111:3), 거룩함(출 15:11)을 통해 영광을 나타내셨고 그 무엇보다 성자 예수에게서 그 영광을 나타내셨다(요 1:14; 고후4:6 ;히 1:3) 또 하나님은 거룩한 임재시에 영광을 나타내셨고 (눅 2:9) 하늘과 온 우주 가운데 나타내셨으며(시 8:1;113:4) 신실한 일꾼들(출 34:5-7; 행7:55)과 거룩한 공동체 안에(신 5:24; 시 102:16; 계 21:11,23) 나타내고 계신다.

종말에는 온 세상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가득하게 하실 것이다(합 2:14). 그리고 모든 성도는 마지막 날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 것이다(유 1:24).

무슨 뜻인지 몰라도 가슴이 웅장해지지요?

뭐 세상에 위대한 언어는 다 갖다 붙이고 몽땅 성경을 인용하였으니 여기에 시비를 걸면 무조건 불경이고 역적이 되겠습니다. 마치 “알라후 아크바르(알라는 위대하시다)”를 외치고 반대하는 이는 무조건 나쁜 놈이 되니 입도 뻥끗 못하고 수궁할 수밖에 없는 것과 비슷합니다.

역시 자신이 없을 때는 심리학자들 이야기처럼 권위를 내세우는 것이 효과적(prestige effect)이지요. 분명 틀린 말은 아니고 화려한 문장인데 정작 마음에 닿는 것은 약에 쓸려도 없네요. 명망 있는 단체의 바른 정의를 기대했는데, 이것은 21세기 바리새인들의 현학(玄學)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에 관한 질문에 답변을 제공하는 세계적 웹사이트인 “Got Question.org”를 참조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 영의 아름다우심입니다. 사람의 영광은 사람이 가진 영의 아름다움으로서 잘못될 수 있고, 결국은 사라지는 것이며, 그러므로 구차한 영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모든 속성

속에 나타나는 것으로서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곧 영원한 영광입니다.

이사야 43:7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사랑, 음악, 영웅적 행위 같은 것들과 나아가 우리가 질그릇(고후 4:7)에 담아내는 하나님께 속한 것들 속에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담은 그릇입니다.

시편 73:24은 하늘 그 자체를 영광이라고 부릅니다. 크리스천이 죽음에 대해 이야기할 때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라고 하는 것을 흔히 듣는데, 이는 이 시편에서 빌려온 구절입니다. 크리스천이 죽으면,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둘러싸이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12에서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하신 것처럼,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분명히 볼 수 있을 것이므로, 그 영광이 사람이나 자연을 통해서 나타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이제 어느 정도 제대로 된 해석에 접근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모든 속성에서 나타나는 것이며 영원한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어 영광을 담은 그릇이므로 충실한 삶을 통해 영광을 돌려드려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들어갈 것이라는 세가지가 요점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추상적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가르침이 모두 엄숙하고 이해하기 쉬운 듯 어렵네요.

더구나 인터넷으로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면 무슨 교회의 목사나 전도사들이 자기도 모르는 말을 장황하게 늘어놓습니다. 어떤 경우는 참으로 황당하고 민망할 지경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Google의 인공 지능 Bard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웹에 올려놓은 모든 잡다한 의견이나 자료들을 인공 지능이 학습하여 취합, 분석하고 추출하여 가장 보편적이고 논리적인 결론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이런 인문학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답을 제시하는 편이라서 문의해 보았습니다.

신의 영광은 하나님의 신성함과 위엄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유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나타냅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세상의 모든 것을 구원하시고 새롭게 만드실 하나님의 계획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신의 영광은 성경에서 자주 언급되는 용어입니다. 예를 들어 시편 19장 1절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창공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리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이 자연 세계에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신의 영광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존재와 위엄을 깨닫게 해주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묵상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을 묵상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경험하게 됩니다.

무슨 뜻인지는 알 것 같은데 특히 하나님의 영광이 사랑과 자비를 나타낸다는 말에 느낌이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묵상하라는 것이네요. 일단 공감은 되네요.

인공 지능은 역시 사람들이 제공한 많은 자료를 취합하여 논리적이고

상식적인 답변을 만들어 주기에 이것이 기독교계의 평균 답안이라고 생각해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행위하고 살아간다는 의미는 여전히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행합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깁니다.

세상에 평화와 사랑을 전파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무궁무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인공 지능은 “영의 아름다움 어찌구”하는 미사여구나 교언영색도 없이 구체적이고 논리적이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알 것 같고, 우리의 할 일도 알겠네요. 역시 우리의 기대 대로 가장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답을 주었습니다만,

① 하나님의 영광이 도대체 무엇인지 ② 왜 하나님은 영광을 나타내시려 하는지 ③ 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위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으로서는 어딘지 부족합니다.

많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거창한 슬로건이 있지만, 이 답변은 너무 소박합니다. 일상적인 믿음의 행위를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이 주장은 맞는 말 같기도 하나,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창한 단어에 상응하는 큰 감동과 명확한 해답은 주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문장에 대하여 해결되지 않은 저의 의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을 세우고 인정받으려는 것은 사람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지만 공치사하지 않으시며 모두에게 베푸시기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천지를 아름답게 창조하신 공으로 인간에게서 영광을 인정받으려 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을 평가절하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대한 모독입니다.

자신의 창조물에게 인정받으려고 한다니요?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가 그 정도로 대단한 존재인가요? 크리스천이 죽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구요? 어차피 하나님의 영광은 빛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영광을 위해서 도대체 무엇을 합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구원하시고 새롭게 만드실 하나님의 계획을 나타낸다구요? 이미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에 의해 인간들은 이미 구원받고 새로워지지 않았나요? 지상에서 또 다른 계획이 있으신 것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에 의해 인류가 구원받은 모든 과정과 결과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것이라면 100% 동의합니다. 그러나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역할은 실제로 도움도 되지 않을 겁니다.

우리 모임의 선배님들은 저보다 먼저 고민하시고 이미 답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저로서는 이 문제를 이해하기 어려웠고 그래서 이 이야기도 장광설이 되어가고 있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 사람들은 자기도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할까? 그것은 신비(神秘)와 권위에 기대려는 사람들의 본성 때문이라고 단정해 버렸었습니다. 하나님에게 무조건 무릎 꿇고 지극히 높으신..., 비할 바 없이 아름다우신..., 눈부신... 등 가장 훌륭한 미사여구로 아부하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 시편의 몇 구절을 배경으로 붙이면 품도 나고 누가 감히 시비걸 수 있을까요!

이쯤에서 여러분들과 나누려는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시든 꽃을 다시 바라보지 않습니다. 패배한 장수는 군신과 백성으로부터 외면받습니다. 한때 잘나가던 미스코리아도 나이 들면, 아주 작은 무대에서도 찾아주지 않습니다. 대학입시나 취업에 실패한 사람에게 위로는 해주어도 관심은 성공한 사람에게만 주어집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사랑하는 사람이 시들수록 더 애뜻하고 아름답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옛날 어른들은 자기 아이들이 먹을 것을 많이 먹는 것을 보면 참 즐거워했습니다. 옛날 어느 광고에 “아기의 행복은 엄마의 행복”이라는 광고문구도 있었지요. 남자로서 가장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순간은 내가 여자를 행복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할 때입니다. 솔로몬은 손자들이 할아버지의 면류관이라고 했습니다.

이들 모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존재로 인해 그 사람이 존재하고 기뻐하는 것, 그것은 주는 이의 행복이자, 존재의 보람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순간을 가장 영광스럽게 여기실까요? 역시 피조물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고마워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행복해하는 순간일 것입니다.

이제 “Crying in the chapel”로 다시 돌아갑시다.

누군가 초라한 예배당에 하나님을 찾아와서 눈물을 흘립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온 것을 기뻐하시며 이 사람을 안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이 사람은 눈물을 흘리며 행복해합니다. 그리고 이 순간, 하나님도 역시 행복하십니다.

이런 순간을 위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인간사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다른 모든 능력보다 사랑은 하

나님의 가장 큰 본성이시기에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 앞에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스스로, 기쁘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바로 이 순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으로 충만된 순간이며, 하나님의 승리이며,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참형을 마다하지 않고 희생하신 이유는 바로 이 초라한 교회를 찾아와 하나님께 기쁨의 눈물로 감사드리며 찬양하는 사람을 맞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진실과 사랑으로 충만한 이 순간. 이 사람을 기대하시며 십자가에서 눈을 감으신 것입니다. 이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Elvis는 이 순간을 노래로 만든 것입니다.

제가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주제로 고민하는 시간에 Crying in the chapel을 선택한 이유입니다. 바울 선생이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이 제일이라며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신 그 이유는 사랑이 하나님의 본성이고 창조의 동기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사랑은 또한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우리 삶의 이유이고 가치인 것입니다. 즉,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느끼는 행복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신 이유이며, 하나님께서 가장 가지고 싶은 가치이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명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를 생각할 차례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것 외에는 특별히 할 일은 없을까요?

하나님은 사랑이고 영광이고 빛입니다. 그런데 태양이 찬란히 빛나더라도 그 빛에 반응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세상은 암흑 속에 있고 빛은 존재의 의미가 없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빛이 어두움에 비취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1-5]고 하였습니다. 죄에 빠져 사망의 상태에 머무르는 인간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스스로 밀알이 되어 어둠에서 깨어나게 하셨으나, 아직도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이 빛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죄와 사망의 상태에 있는 그들에게 빛을 주시는데 있고 “하나님의 영광”은 그 결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명확합니다. 어둠 속에 있는 그들이 하나님께 찾아와 기쁨의 눈물을 흘리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할 일입니다.

이를 위하여 스스로 나설 용기와 각오가 있는지 자문해볼까요? 솔직히 저는 아직 자격도 없고 용기도 없습니다. 그리고 관망하는 것이 정말 저의 체질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우리 모임 식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동할 준비를 하고 계실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안주하는데 익숙해져서 행동해야 할 이유와 용기를 잊은 것 같습니다. 용기를 잃은 우리가 현실의 세상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다행히, 정말로 다행히 오직 한가지면 충분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시기를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일 겁니다.

# 천 국

오 성 해

## 천국과 그 백성 (송두용)

천국은 밝다. 천국은 빛의 나라다. 그래서 거기엔 한점의 암흑도 없다. 천국은 생명과 사랑, 또 신뢰와 진실의 사변으로 성립된 정방형의 나라다. 그리고 거기에는 기도와 찬송, 감사와 기쁨이 흐르고 넘친다.

그런데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다. 그리고 또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다. 따라서 하나님과 그 독생자를 믿어서 하나님과 예수에게 속한 자는 당연히 천국의 백성일 것은 명백하다.

그렇다! 신자는 천국의 백성이다. 즉 진실과 신뢰, 또 사랑과 생명으로 둘러싸이고, 또 한점의 암흑도 없는 빛의 나라인 천국은 신자의 나라다. 그런 고로 천국의 백성인 신자는 언제든지 그 영혼이 밝다. 또 영혼이 밝으므로 그 마음이 깨끗하다. 그리고 마음이 깨끗하고 영혼이 밝은 자는 늘 겸손하다. 따라서 겸손한 자는 기도하며 찬송할 줄 안다. 그래서 늘 감사와 기쁨에 넘친다.

아! 끊임없는 기쁨, 감사, 찬송, 기도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천국 백성의 행복함이어!

## 하나님의 나라(노평구)

하나님의 나라는 소위 세상 정치적인 지배가 아니고, 인류가 불신과 죄에서 해방되어 도덕적으로 신생,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의 영적 지배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는 그리스도 결코 순리적인 환상만은 아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기독교자에게 구체적으로 이루

어지는 도덕적인, 영적인 불사의 신적 지배인 나라인 것이다.

유사 이래 5, 6천 년 전 다리우스, 알렉산더, 시저, 진시황, 나폴레옹 등의 지배가 궁극적으로 인류에게 가져온 것이 무엇이나? 전제 정치, 민주 정치, 사회주의 또한 오십보, 백보의 차이로서 인류의 의식주의 문제 이상은 아니다. 사람이 짐승이 아닌 이상 이로써 절대 만족할 수는 없는 것이다.

깊이 자체의 불안전과 죄악의 죽음과 불안 속에 있는 인류가 요구하는 것은 철학자들의 이성, 양심이나 문화의 진보도 아니고 죄와 죽음에서의 해방과 신생, 부활이다. 그리고 이를 제공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인 것이다.

그리고 이는 또한 결코 오늘날 소위 기독교들의 지상천국 건설의 조건이나 보장을 위한 것도 아니다. 예수 자신 내 나라는 세상 나라가 아니고 하였듯이(요한 18:36). 그것은 우리의 죄와 불신으로 저지되었던 신의 지배, 천국에의 직접 참가를 위한 것이다.

그리고 이 천국에 대한 구체적인 체험은 또한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하여 이것이 인류 위에 성취될 것을 믿는 궁극적인 신앙에 우리를 서게 한다.

### **내세 본위의 종교(이진구)**

기독교는 영적인 종교다. 내세 본위의 종교다. 현세를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고, 최종적인 소망을 내세에 둔다. 그러나 많은 기독교인은 영적인 축복과 동시에 육적인 축복, 현세의 축복까지 바란다.

그러나 인간이 죄의 노예인 한 그러한 기대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기독교는 2천년 동안 세계 최대의 종교로 성장했지만, 세상이 조금도 좋아하지는 않았다. 어쩌면 인간이 더 악랄해졌는지도 모르겠다. “살인하지

말라” 했지만 무차별 대량 학살의 핵무기가 지구를 일곱 번 파괴하고도 남으리만치 비축되었다 하고 “도덕질 하지 말라” 했지만 그 규모와 질은 견잡을 수 없으리만치 되었고 “간음하지 말라” 했지만 인간 사회가 동물 사회로 변한 느낌이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그에게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한다(요4:24). 고 가르치셨지만 의식과 제물로 예배할 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있는지 없는지? 예수께서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볼수 있겠느냐?”고 예언하셨는데 과연 옳은 말씀 같다.

기독교는 현세적인 부귀영화를 획득하는데는 무력하다. 아니 방해가 된다. 바울은 “내게 유익했던 이런 것들을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겼다 그뿐만 아니라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무엇보다도 존귀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겼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알게 되고 또 모든 것을 오물로 여겼다”(빌3:7-8).

세상에서 뇌물로 이권을 사려는 것같이 신에게 제물로 이권을 사려는 것은 미신이다.

기독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순종하고 그 은혜에 감사한다.

현세에서 보상을 받지 못할지라도 내세에서 받을 것이다. 하나님은 의요 사랑이심을 믿는 것이 기독교다.

### **소망의 세계(한병덕)**

소망이란 그 대상이 천국이나 하나님, 구원 등으로 표현되는데 일반적으로 구원을 의미합니다. 천국이나 하나님도 구원이라는 말속에 그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학자 C.S 루이스의 글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천국에 대한 소망이 확고하지 못하게 되면 기독교는 세상에서 힘을 잃게 된다. 그러나 그들의 신앙이 천국을 지향하면 세상은 덤으로 얻게 되고 반대로 세상을 지향하면 천국도 세상도 둘 다 잃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불신 세상이나 일부 그리스도인들까지도 기독교인들이 세상은 소홀히 하고 천국만 지향하기 때문에 기독교가 세상으로부터 비난받고 버림을 받는 것이라고 비판합니다. 함석헌 선생이 사회정치 문제에 참여하고 무교회와 갈라서면서 한 말씀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했지 언제 이 땅은 버리고 하늘만 쫓으라 했느냐?” 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루이스의 이 말씀은 인도의 간디가 진리와 애국의 관계에 대해서 애국을 쫓지 않아도 진리를 선택하면 애국은 자연스럽게 따라 오는 것이라는 말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옛날 “다미선교회”와 같은 시한부 종말론자들의 경우처럼 기독교 신앙을 오해해서 그렇지, 진정으로 천국을 소망하는 그리스도인이야말로 진정으로 세상에서도 정의롭고 바르게 살며 세상을 인도하는 사람인 것은 말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는 세상에서 자신을 희생할 “하나의 밀알이 되라,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했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했고,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같이 하라”는 명령을 삶으로 살아내라는 의무로 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또 루이스는 하늘에 소망을 두어야 하는 이유로서 이 세상에서 자기의 소망을 성취하고자 이리저리 찾아다니지만, 그것은 헛수고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그러므로 근본적으로 영적인 존재라 할 인간에게는 이 세상에서는 결코 주지 못하는 것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인간에게는 지상적인 욕구도 있고 이를 성취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이때 대처하는 방법도 나뉘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긍정적인 대처법은 그리스도인이 취하는 방식으로서 어차피 욕구가 이 세상에서는 채워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관심을 하늘로 돌리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이끌어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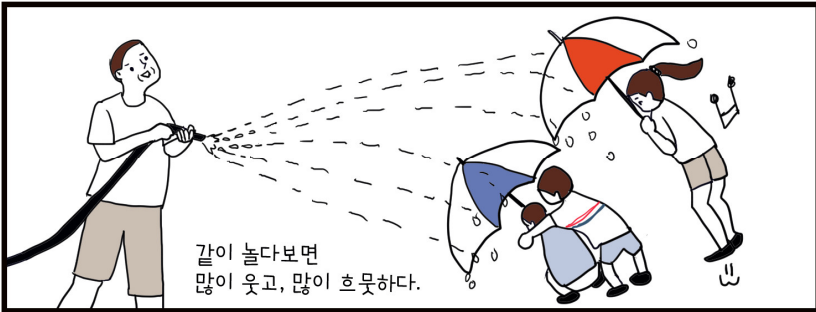
우찌무라는 기독교의 특성을 한마디로 “대망하는 교”로 규정했는데 천국에 대한 소망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의 하나님께로 부터 내려오는 것을 기다리는 종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소망의 삶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느냐의 문제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영부영하지 않고 성서에 나오는 부자의 예와 같이 하나님 없는 부나 권력이나 세속적인 가치에 매몰되지 않고 “죽을 자”라는 사실을 망각하지 않는 천국을 대망하고 창조주 앞에서의 엄숙한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 만화로 보는 한 줄 성경

메나리

<아이들을 담는 그릇>





자녀는 여호와께서 주신 선물이며,  
 상급으로 주신 그의 축복이다.

(시편 127:3)

# 노평구 선생 소천 20주년 기념 묘역 참배 안내

제목 : 노평구 선생님 묘역 참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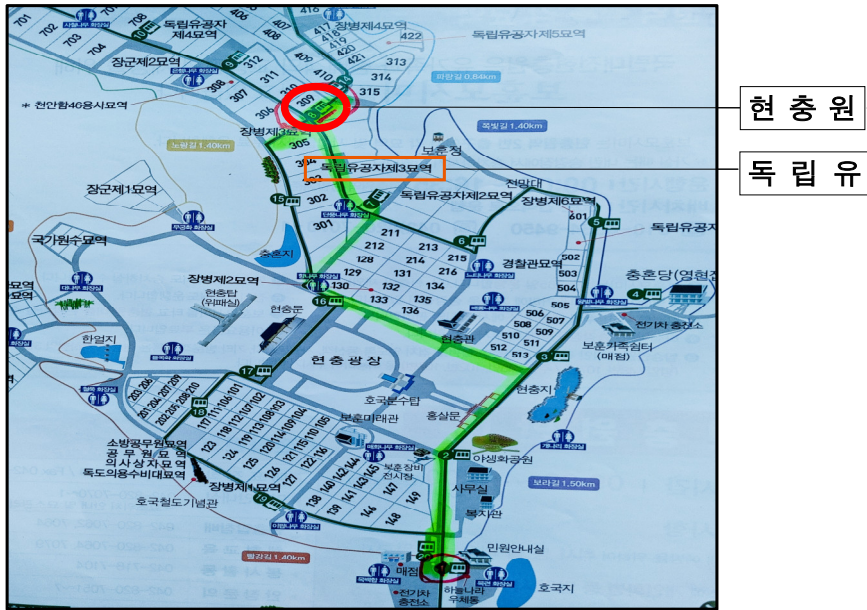
일시 : 2023. 09. 08 (금) 11:00

장소 : 대전 현충원 독립유공자 제3묘역 5호 (지도 참고)

오시는 길 : 1. 대전역(철도)->대전1호선(반석 방향) 탑승->현충원역 2번 출구 하차 -> 셔틀버스 탑승 -> 현충원내 8번 승강장 하차 (아래지도 원형표시)

- \* 지하철 소요시간 28분
- \* 셔틀버스 30분 간격 / 문의 010-4884-9450
- 2. 개인승용차 셔틀 활용 가능 010-3708-1319 (진행자원봉사)
- 3. 문의/연락: 임세영 (010-3761-0323)

[대전 현충원 경내 지도]



【 오류문고 안내 】

오류문고는 기독교 신앙 서적 3,500여 권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기독교 무교회 관련 서적을 거의 모두 찾아볼 수 있는, 작지만 알찬 도서관입니다. 구로구청의 작은 도서관으로도 등록되어 있는 민간 도서관입니다. 많이 이용해 주십시오.

- ☆ 연락처 : 왕정숙 010-8151-1930
- ☆ 오류문고 인터넷 카페 주소  
<http://cafe.daum.net/oryubooks>

【 오류동 성서모임 안내 】

일시 :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 오류문고  
(오류역 1번출구 도보 5분)  
연락처 : 조규철 010-2228-8200

【 부산 성서모임 안내 】

일시 : 매주 일요일 오전 9시 00분  
장소 : 부산 기장군 철마면 중리2길 14-7  
연락처 : 손현섭 010-2060-5534



오류문고

구로구 오류동 경인로 8길 75  
상가205호(오류동, 삼천리A)

성서신애사 연락처 : 손현섭  
☆ 010-2060-5534  
☆ [sonhs0105@hanmail.net](mailto:sonhs0105@hanmail.net)  
☆ 부산시 기장군 철마면  
중리2길 14-7  
우편번호 46050

월간 성서신애 제504호 2023년 9월

인	쇄	2023년	9월	1일
발	행	인	손	현
편	집	인	손	현
인	쇄	인	김	진
발	행	소	성	서
우	46050	부산	기장군	철마면
인	쇄	소	신	우
			디	엔
			피	